


#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2020년 12월 09일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항일여성 TV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0257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사숙재회관 402호  
전화 02)924-0660 팩스 02)924-067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주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후원  국가보훈처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주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 목차

---

### 사회

신영숙((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

### 발제

**대중교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이숙화(한국외대 강사)

**동북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를 - 그들의 역할과 의미**

리광인(前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교수, 역사 연구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강영심(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동북항일연군 여전사 이재덕(李在德)**

강수옥(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 부원장)

### 토론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이선이(경희대 인문학 전임연구원)

---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제 I

## 대종교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이숙화(한국외대 강사)

## 1. 대종교 여성 연구의 필요성

대종교는 1909년 음력 1월 15일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 36년 동안 대종교는 1대 교조(敎祖) 나철(羅喆, 재임기 1909. 2~1916. 8), 2대 교주 김교헌(金敎獻, 재임기 1916. 9~1923. 12), 3대 교주 윤세복(尹世復, 재임기 1924. 1~1960)으로 이어지는 항일투쟁의 길을 걸었다. 특히 대종교는 1910~20년대 민족교육운동과 대한군정서(일명 북로군정서)를 통해 청산리전투를 치르고 신민부 결성, 한족총연합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항일독립운동의 주역으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종교의 항일역량은 1910년대, 1920년대 별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1910년대는 나철과 김교헌을 중심으로, 단군에 대한 숭봉의식을 높이고 민족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다. 이 기간에 나철은 단군과 관련된 개천절, 어천절을 처음 시작하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배달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단기연호를 사용하고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알리는데도 그의 역할이 컸다. 김교헌은 『단조사고』·『신단실기』·『배달족역사』·『신단민사』 등 역사서를 저술하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정립했다. 이렇게 민족의 주체성과 독립을 강조한 '대종교의 정신'은 1910년대부터 국내의 동포들의 민족의식 형성과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0년대 대종교의 항일역량은 독립전쟁에 집중되었다. 1911년 전후로 나철과 대부분의 지도부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와 상하이로 이주하였다. 현 지린성(吉林省) 허룽시(和龍市) 청호촌(淸湖村)에 총본사를 설립하고, 한반도 및 만주, 상하이, 러시아 연해주 등 국내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북간도 최고의 독립군단체인 대한군정서를 조직하고,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위업을 올렸다.

지금까지 대종교의 항일독립운동은 남자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어느 종교 단체나 마찬가지로 대종교도 남녀 교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독 대종교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대종교 내부적으로 여자 교인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여성들은 교단 내 활동이든 항일운동이든 전면에 나선 경우가 매우 드물다. 또한, 여성들이 쓴 기록, 혹은 여성에 관한 기록 자체가 없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대종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수행과 교인으로서의 자질에 따라 주어지는 자격이 있다. 예컨대 대종교에서는 참교(參敎)→지교(知敎)→상교(尙敎)→정교(正敎)→사교(四敎)의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 단계는 교주의 지위인 도사교(都司敎)이다. 이렇게 단계에 따라 수여되는 품계를 '교질(敎秩)'이라고 하는데, 1922년에 기록된 대종교 교인 명부인 『종문영질(宗門榮秩)』에는 참교부터 도사교에 이르기까지 남자 교인들의 이름이 골고루 분포되었다. 그러나 여자 교인은 지교까지만 확인된다.<sup>1)</sup>

명부에 오른 남자 교인의 수는 665명이지만 여자 교인의 수는 56명이다. 남자 지교가 128명인데 반

1) 1922년 기록인 『종문영질(宗門榮秩)』은 대종교 교인들이 각 단계별로 교질을 받은 날짜를 기록한 명부이다. 영예로운 교질이라는 뜻에서 '영질(榮秩)'이라고 한다.

해 여자 지교는 5명에 불과하다. 교질 대상에 여성 교인이 적은 것은 전체 교인 중에 여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지만, 높은 지위일수록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종교 교리에 여성해방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대 교주 윤세복은 독립운동 중에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종교는 창립 때부터 절대독립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다. 천도교나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관여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대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남자들은 독립전쟁의 전선에서 활동했고, 여자들은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구조였다.

최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와 독립군의 증언 기록에 따르면 봉오동·청산리전투에서 여성들의 '후방 지원'은 두 전투의 중요한 전승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청산리전투 지역은 대종교충본사가 있던 곳으로, 대종교 교인들의 집단촌이기도 했다. 대한군정서군은 이러한 마을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후방 지원을 받으며 전투를 이어갔다. 특히 북간도에 설립된 독립군단체는 대한군정서를 비롯해 대한국민회, 대한신민단, 광복단 등 여러 독립군단체가 각각의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었던 점에서 만주 지역 항일여성운동은 종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주지역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종교 1대 교조 나철 @출처: 국가보훈처



삼중사 묘역 @이숙화 제공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 글에서는 대종교의 항일운동에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여성들의 항일투쟁 참여 방식은 남성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내용과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을 지원하고 돌보았던 무명의 여성들, 가족전체가 대종교 교인으로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오건해(吳健海)·신순호(申順浩) 모녀와 그의 가족들, 조완구의 아내 홍정식(洪政植), 그리고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던 정신(鄭信)의 아내 이함(李涵)의 항일운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홍정식과 이함은 독립운동가 명단에는 없다. 이 글을 통해 그들의 독립운동을 처음 알리고자 한다.

## 2. 대종교 인물과 독립운동

1909년 음력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나철의 집에서 대종교 중광식(重光式)이 열렸다. ‘중광’이란 옛것을 되살려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로, 대종교에서는 단군의 말씀을 세상에 알려 거듭 빛낸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대종교 중광의 중심인물은 나철이다. 중광식은 윤양 김윤식이 후원했으며, 오기호, 김인식, 이기, 김동필, 윤주찬 등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여러 지식들의 입교로 이루어졌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자 나철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북간도로 대종교본사를 이전하고, 주요 지도부들을 상하이, 만주, 러시아 연해주 등지로 파견하여 국외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추진해갔다. 나철과 함께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을 활동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하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한 경우이다. 상하이에는 대종교 정신에 뿌리 깊은 신규식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다. 신규식은 1909년 7월경 대종교에 입교한 뒤 1911년 상하이로 건너가 직접 대종교 시교당(施教堂)을 세우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종교 교인으로서 박은식, 신채호, 이동녕, 조완구, 조성환 등이 동계사, 박달학원 등을 설립하여 청년들을 교육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상하이에 대한민국의정부 수립 이후 개천절·어천절<sup>2)</sup> 등 단군 기념행사를 공식 기념절로 거행한 데는 신규식의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다음, 만주 및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종교 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대종교에서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던 인물들로 서일, 현천목, 박찬익, 김좌진, 계화, 정신, 김혁, 이장녕, 이청천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다. 서일, 박찬익, 현천목, 계화, 정신 등은 1911년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설립하고 민족학교 설립과 민족교육 등에 매진하였고, 1920년대는 중광단 단원과 김좌진, 이장녕, 이청천 등 육군무관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과 대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상설, 이동녕, 백순, 고평 등이 권업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마지막으로, 서간도 및 국내에서 교육, 언론, 역사, 한글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있다. 김교헌은 역사서술로 민족사를 정립하여 단군의 자손을 ‘배달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박은식은 윤세복이 세운 서간도 동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수의 역사서를 집필했다. 김교헌의 역사서와 박은식의 『동명성왕실기』·『발해태조건국사』·『천개소문』 등은 국내의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민족사 교육의 교재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유근, 장지연 등 언론계의 인사와 주시경, 정인보, 이극로, 정열모, 최현배, 권덕규 등 조선어학회에 관계했던 한글학자들이 대종교 신앙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2) 대종교에서는 단군이 탄생한 날을 개천절(開天節)이라 하고, 단군이 지상에 내려와 선정(善政)을 베풀다가 아사달산에서 승천한 날을 가리켜 어천절(御天節)이라고 한다. 대종교에서는 1909년 음 10월 3일 처음 개천절 제의를 지냈고, 어천절 기념제는 1910년 음 3월 15일에 처음 시작했다. 두 기념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지내다가 광복 후에 개천절만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의 전면에 있던 대종교 교인들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그리고 대종교를 ‘불령단체’로 보았다.<sup>3)</sup> 대종교의 비타협적 항일운동으로 조선총독부는 대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다. 191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포교규칙」에서 대종교 및 한국의 자생종교를 ‘종교 유사(宗教類似)단체’로 규정하여 국내에서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지만, 국외 중국, 상하이,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 3. 대종교의 여성관과 민족교육

불교, 기독교보다 한국 자생종교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동학,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의 교리에 여성의 권리 신장과 계몽이 포함된 것은 한국 민족종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동학은 태동과 함께 남녀평등사상을 강조했다.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 해월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은 남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도록 한 인간해방사상이 들어있다. 이를 천도교의 손병희는 ‘인내천(人乃天)’으로 계승하였다.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천도교는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다. 1920~30년대 천도교 여성들은 천도교내수단·천도교내성단·천도교여성동맹·천도교청년여성회와 같은 여성단체들을 통해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천도교의 여성운동가 주옥경(朱鈺卿)·손광화(孫廣嬋)·김우경(金友卿) 등을 비롯해 여성 지도부는 ‘간부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의 대표, 상무위원, 집행위원 등 지위를 갖고 직접 활동했다. 특히 천도교여성동맹은 1928년 4월 5일 제1회 전국대표대회에서 근우회 지지를 선언하고 본부 임원 가운데 다수가 근우회 본부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천도교 측에서 1922년에 『부인』을 창간하고, 1923년에는 『신여성』을 발간하는 등 여성계몽을 위한 사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증산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도 사회개혁 성향이 매우 강했다. 강증산은 “후천은 여자가 주인이고 남자가 손님”이므로 후천세상은 여성의 운세라는 교리를 강조했다. 증산은 여성의 재가허용을 주장하고, 여성들도 남자와 똑같이 공덕을 쌓아 ‘여장군’으로서 독립된 인간상을 가져야 한다는 남녀평등 사상을 제시했다.

1916년에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 교리에도 남녀평등 의식이 포함되었다. 소태산은 ‘일원상(一圓相)’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원불교 안에서 양반과 상놈, 적자와 서자, 남녀노소 간의 신분차별을 없앴고,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했다. 소태산은 교단의 의결기관

3) 일제는 만주 및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일제의 식민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소요(독립운동)를 일으키는 조선인들을 ‘불령(不逞)’으로 규정하고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독립군단체를 ‘불령단체’로서 비하해서 불렀다. 일제가 규정한 불령선인은 1)일제 및 조선총독부에 항거 또는 저항하는 조선인과 그 세력, 2)독립운동을 한 조선인과 그 세력, 3)일제 및 조선총독부의 훈령 및 지시를 따르지 않는 조선인, 4)일본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조선인, 5)일제나 조선총독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조선인 또는 그 세력을 말한다.

에 여자들로 구성된 수위단 시보단을 조직하고 여성 제자들을 성직자로 키웠다. 한국의 자생종교는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발생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민중의 열망을 종교의 교리에 담아낼 수 있었다. 다만, 대종교는 이들 종교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출발했다. 대종교는 대한제국이 일제의 보호국체제로 들어간 시기에 성립되어 민족과 국권회복을 우선과제로 두었다. 교인들이 지켜야 할 교칙 중에는 “집안의 유물과 고적(古蹟)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포함될 만큼, 사회개혁보다는 고유문화와 그 습속을 찾아 보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종교의 이러한 특성으로 대종교 창설 이후 교리를 만들면서 여성문제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학생을 위한 야학과 한글 강습은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은 민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고 여성해방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천도교, 원불교 등이 식민체제 안에서 생활종교로서 존속했다면, 대종교는 식민체제 밖에서 절대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1933년 만주국 민정부총무사조사과에서 조사한 종교 현황에는 이러한 대종교의 민족에 관한 관념과 교육관을 살펴볼 수 있다.

“대종교의 주지는 한민족의 선조는 백두산에서 나왔고, 중국 민족의 경우 그 갈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권회복에 노력하여 부여 민족의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중략) 시베리아와 만주지방에서는 그 어떠한 종파에 속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단군교(대종교를 말함-필자주)를 신앙하는 자가 많다. 이는 대개 건국한지 오래됨을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종래 조선인이 편찬한 교과서, 기타 서적에 단군기(檀君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4)</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종교의 민족교육은 민족 전체를 공동체에 관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내적 질서는 유교 관념에 따라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작성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대종교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다른 종교보다 늦은 1920년대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1922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대종교계 동흥학교에서 여자야학부를 설치했고, 북간도에 소재한 동2도본사에서도 남녀청소년을 모아 역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 무렵 15세 이상 40세 미만 남녀로 구성된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상하이에서는 해향청년회, 북간도 용정촌에서는 용정청년회 등이 있었다. 1922년 2월에는 서울에 있었던 대종교 지사에서도 음악강습소를 신설하여 여성 50여 명에게 신가(神歌)를 가르쳤다. 교단 안에서 처음으로 여성합창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성해방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향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리전투 이후로는 사실상 민족운동세력이 약화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사상으로 대체되는 시기였다. 이 무렵에 이루어진 대종교의 여성교육은 민족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청산리전투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으로 ‘경신참변’을 겪은 동포사회는 더 이상의 민족을 위한 희생과 투쟁보다는 일상의 평화를 원했다. 젊은 층에서는 신시대의 조

4) 민정부총무사조사과, 『在滿朝鮮人事情』, 1933, 84~85쪽.

류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났고, 더불어 종교 신앙을 봉건적이고 퇴폐적 미신으로 비판하는 반종교운동도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대종교도 반종교운동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단의 존립을 위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아야 했다. 당시에 종교주의를 고집했던 기독교의 명동학교, 원종교의 원종학교 등은 결국 반종교운동의 소용돌이에서 교장이 사임하거나 근거지를 옮기는 일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서 대종교 지도부는 종교의 사회참여 역할을 강화하였고, 여자학교 설립과 여자야학부 개설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4. 청산리전투에서 ‘후방 지원’

1910년대 대종교에서 여성의 지위는 나철의 부인 기길(奇姑)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기길은 교주의 부인이었지만 대종교에서 그녀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나 호칭은 없다. 기길은 1911년 나철과 함께 북간도로 이주한 뒤 박찬익, 박승익, 심근, 현천묵, 백순, 조창용 등과 함께 백두산 인근의 동포 마을로 대종교 포교를 다녔다. 교주의 아내로서 기길의 포교 성과는 일반 교도보다 컸을 것이다. 1912년 독립운동가 정원택이 청파호의 대종교총본사를 방문하고 남긴 『지산의유일기』에 따르면, 대종교총본사에서 개천절, 어천절 기념제가 열릴 때면 천여 명의 동포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또한 교인들의 포교로 한 마을의 주민 전체가 대종교에 입교하는 일도 있었다. 총본사를 찾아온 방문객들의 식사준비는 기길과 여성 신도들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교인들의 활동은 대종교의 종교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내조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듯이, 교단 살림을 맡거나 남성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한 일은 기록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로만 여겼던 것 같다. 대종교 여성들의 내조와 안살림은 항일무장투쟁에서는 ‘후방 지원’의 형태로 연결되었다. 예컨대 서일과 김좌진이 이끌었던 대한군정서는 왕청현(汪淸縣)에 본부가 있었고, 지방조직으로 경신분국(警信分局)이 있었다. 연길, 화룡, 안도, 돈화현 등 지역에 설치된 약 40개의 경신분국은 대종교 시교당과도 연결되었다. 이곳의 주요 임무는 본부와 지방간의 통신 연결, 독립군에게 필요한 물자보급, 일본군 이동에 관한 정보 수집, 지방으로 출장 간 독립군에게 숙식제공 등이었다. 경신분국은 4인 이상의 담당자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종교 교인들이었다. 경신분국에서 여성 교인들의 활동은 중요했다. 예컨대, 본부인 대한군정서 총재부나 사령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경신분국에서는 독립군들을 위해 소를 잡아 군부대로 보내곤 했다. 이러한 내용은 군정서의 『사령부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1920년 7월 10일 (토요일) 맑음 (경신 5월 25일)  
 경리국에서 큰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학도들에게 호궤(犒饋)하였다.

1920년 7월 15일 (목요일) 맑음 (경신 5월 30일)  
 경신 제1분국 제1·제4 양과에서 사관학도들을 호궤하기 위해서 큰 소 두 마리를 사서 보냈다.

1920년 7월 30일 금요일 맑음

경신 제1분국 제5과 관내에서 인민들이 각출하여 소 두 마리를 사서 사관 학도의 호궤에 제공하였으므로 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주었다.

1920년 9월 6일 (월요일) (경신 7월 24일)

오전 11시 경 중국 육군 2백여 명이 소왕청으로부터 십리평에 내도하였으므로 사령관·참모장 참모 부장·이범석 교사는 이들을 맞이하여 우대하였다. 큰 소 두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잡아 호궤하였다.<sup>5)</sup>

또한 여성들은 독립군들이 사용할 이불, 군복 등을 제작해서 군정서 사령부로 보냈다. 일본군의 눈을 피해 산속에 천막을 치고 독립군 군복을 만들어낸 것도 여성들이었다.<sup>6)</sup>

여성들의 독립군 지원은 청산리전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리 지역은 대종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이기도 했다. 청산리 삼도구(三道溝)는 박찬익이 설립한 대종교의 첫 해외 시교당이 있었던 만큼 청산리지역은 대종교와 매우 밀접한 곳이다. 대한군정서군이 청산리전투를 앞두고 이곳으로 이동한 이유로 교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 「여자의 일편단성」이란 제목의 글에는 청산리전투에서 여성들의 후방 지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금번 북간도 방면에서 우리 독립군이 왜적으로 더불어 교전할 때에 우리 군은 예기치 않았던 재앙의 전쟁임으로 취사를 제공할 준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각 지방에 있는 부인들은 애국하는 일편의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총탄이 분분한 전선에 용감히 나아가 전투에 피로한 군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위로하였다. 어떤 군인들은 전투에서 분투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부인들이 울며 권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여 기어이 음식을 먹도록 하여 일반 군인들이 큰 위안을 받았다.”<sup>7)</sup>

청산리로 이동했던 독립군은 갑작스럽게 전투에 임하게 되어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하루에 1식, 감자 3개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에 부딪히자 독립군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부인들이었다.

대한군정서 부대원 이우석이 남긴 수기에도 전투 중 부인들이 나서서 밥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5) 「진중일지」, 『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이 일기의 원제목은 '사령부일지' 이나 독립운동사자료집에 '진중일지'로 편찬되었다).

6) 「間島地方 武力 不逞鮮人 動靜에 관한 件」(1919.7.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19, 국사편찬위원회 DB.

7) 『女子의 一片丹誠』, 『독립신문』, 1921.2.5.

(1920년) 9월 7일 (화요일) 부슬비

(무기운반을 위해-필자 주) 지방에서 뽑아온 농민 200여 명과 경비대원 30여명이 길을 떠났다. 산길로 산 고개를 타고 훈춘 지방에 가서 민가 가서 자고 국경을 넘어 러시아 국경으로 갔다. 30여 호 되는 동포의 부락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곳에서 70여리쯤 가면 해삼위(블라디보스톡-필자 주) 남쪽 항구 안쪽 연안지역이다. 배편으로 이곳까지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온다 한다. 2~3일 내로 갈 줄 알았는데 의뢰로 무기매수에 실패되었다는 통지가 왔다. 실패 원인은 화폐가 개혁되어 돈이 못쓰게 된 까닭이다. 그런 즉 그 당시 형편은 돈도 어렵고 동원된 운반대를 돌려보냈다가 다시 동원하기도 어렵다. 기다리자니 200여 명의 식량문제도 문제이고 잠깐 운반하러 왔던 농민들은 농사도 가사도 낭패지경이고, (중략) 30여 호에 200여 명이 숙식을 하자니 매호에 평균 7명씩 배가 되었다. 조그마한 방에 7명이 쪼그리고 잠을 잔다. 여름철이라 한데에서도 잘 수 있으나 그해 따라 장맛비는 매일같이 내린다. 방 안에 갇혀 산다. 우울한 마음은 형론하기 어렵다. 주인아주머니에 양식 걱정은 아이들의 배고프다 조르는 소리는 참으로 들을 수 없다. 그럭저럭 20일 동안은 끼니를 이었다. 종내는 감자알이 들지 않은 것을 캐기 시작했다. 그래도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았다.”<sup>8)</sup>

무기를 구하러 간 200여 명의 독립군 운반 대원을 거의 한 달 동안 돌본 이들은 민가의 여성들이었다. 청산리 백운평전투에서도 일본군과 대치상황에서 독립군들은 부인들이 만들어준 주먹밥을 먹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백운평 전투 1920년 10월 20일

“우리는 기적으로 포위를 뚫고 살았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싸웠다. 주민들에게 주먹밥을 얻어먹고 싸웠다. 포탄이 비오듯하는 중에 치마 자락의 주먹밥을 던져주는 애국부인들은 독립군의 용기를 백배나 나게 했다. 독립군들에 싸웠다는 것보다 부인들의 애국심이 청산전쟁에 승전을 시킨 줄로 안다. (중략) 나도 낙오가 되어 산에서 헤매다가 천수평에서 멀지 않은 정성촌이라는 데를 들어갔다. 동민들에 말이 “왕청현으로 간다고 합디다. 저기 산으로 가면 수백 명이 지나간 고로 산길이 나 있을 것이요”한다. 그리고 길을 가르쳐 준다. “빨리 가면 만날 것이요.”한다. 부인이 밥을 한 보자기 싸서 주며 우리가 먹을 아침밥인데 우리가 또 지어 먹을 요량하고 빨리 가라고 한다. 참으로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 산으로 들어가니 지나간 길이 환하게 대로같이 뚫렸다.”<sup>9)</sup>

부인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한가운데로 주먹밥을 만들어 독립군에게 전했고, 전투 후 낙오한 병사들을 보살피고 치료해준 것도 여성들이었다.

8) 이우석, 『청산리 대첩』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2013, 81~85쪽.

9) 이우석, 『청산리 대첩』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101~102쪽.



“동포에 집을 찾아오니 의군부 군인 3명과 서로군정 학생 2명이 있다. 서로군정서 학생들은 청산리 전쟁(청산리전투-필자 주) 소식을 듣기 위하여 북간도에 갔다 온다고 하며 김좌진 선생도 만났다고 한다. 나는 그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연결현 왕바버자라는 부락을 찾아갔다. 김좌진 장군은 떠나가고 (중략) 우리는 야음을 타서 3~4명 조를 짜서 산으로 산으로 경계선을 넘어 동포의 농가에 들어갔다. 사경에서 생환한 것 같다.”<sup>10)</sup>

여성들은 총칼을 들고 전투에 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립군 스스로 “부인들의 애국심이 청산리전쟁에 승전을 시킨 줄로 안다”고 했듯이 청산리전투에서 여성들은 후방 지원을 했던 무명의 독립군들이었다.

## 5. 대중교 여성독립운동가

항일독립운동에 직접 나섰던 대중교 여성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계나 대중교 교단의 관계자들조차 대중교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발굴하지도 않았다. 이 글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례, 남편의 내조와 가족생계에 헌신했던 사례,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던 사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았지만 독립운동과 대중교와 관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모녀 독립운동가가 있다. 오건해(1894~1963)와 신순호(1922~2009)이다. 이들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그 가족이 모두 대중교를 신앙했고,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오건해의 남편 신건호, 신순호의 남편 박영준, 그리고 박영준의 부친 박찬익, 신건호의 친형 신규식(1879~1922)까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이어간 사례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두 사람은 대중교 교인의 아내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다. 한 사람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으며 홍정식(1881~1945)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임시의정원을 역임했던 조완구의 부인이다. 조완구는 1909년에 대중교에 입교하여 해방 이후까지 줄곧 대중교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해방이후 김구의 노선을 따라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으며 1954년에 사망하였다. 홍정식 역시 대중교를 신앙했다. 홍정식은 독립운동 서훈자가 아니며 독립운동의 전면에 활동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간도에서 이상룡의 손자며느리이자 이병화의 아내인 허은의 안살림,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의 내조가 독립운동이었듯이 독립운동가의 아내 홍정식도 시어머니 봉양과 자식 교육을 독립운동으로 여기며 생활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함(李涵, 1904~?)으로, 독립운동가 정신(鄭信, 1898~1931)의 부인이다. 이함은 북간도에서 간도부인애국회를 발기하고 회장으로서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정신과 함께 대중교를 신앙하면서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사 서술에서 간도부인애국회와 관련해 이함의 이름만 간단하게나마 소개되어있다.

10) 이우석, 『청산리 대첩』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106~107쪽.

### 1) 모녀 독립운동가 오건해와 신순호

오건해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다. 1926년경부터 남편 신건식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재무부차장을 역임할 당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아 도왔다.

오건해와 신건식은 부부 독립운동가로서 모두 서훈을 받았고, 여식 신순호, 사위 박영준도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았다. 박영준의 부친인 남파 박찬익도 임시정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신건식의 집안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냈다. 조카 신형호가 독립운동을 했으며 신규식의 사위 민필호와 그의 여식 민영주도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았다. 오건해와 신순호 뿐만 아니라 박영준의 본가 가족까지 모두 대중교를 신앙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오건해와 신건식은 김구, 박찬익 등 독립운동가들을 모셨고, 창사(長沙)에서 지낼 때는 이동녕을 모시며 지냈다. 1938년 창사 임시정부에서 회의 중 이운한에게 총상을 입은 김구가 병상에서 퇴원 후 오건해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한 일화는 유명하다. 중경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홀로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도 오건해의 보살핌이 있었다고 한다. 박영준은 “독립운동가치고 오건해 여사가 만들어 준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 솜씨 좋은 오건해 여사는 언제나 동지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낸 분”<sup>11)</sup>이라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오건해의 돌봄 활동과 안살림을 독립운동 차원에서 회고하였다.

오건해의 활동은 임정의 안살림에서 그치지 않았다. 1940년 6월 16일 한국독립당 산하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에 참여하여 방순회(회장), 김효숙(부회장), 김정숙(상임위원 겸 선전부장), 최형록(감찰위원, 조소앙 부인) 등과 함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지원과 독립운동가 자녀 교육을 위해 활동했다. 이때 신순호도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민족혼을 잃지 않도록 특히 한글과 역사교육에 철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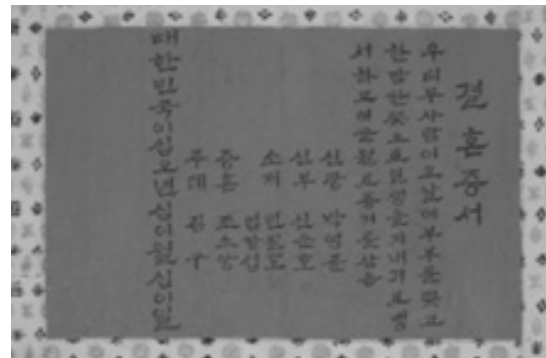
왼쪽부터 오건해, 신순호, 신건식  
@출처: 국가보훈처

신순호는 1922년 1월 22일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4살 무렵에 모친 오건해가 상하이로 이주하여 이때부터 임시정부 가족들과 생활을 시작했다. 신순호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2세인 지청천의 여식 지복영, 민필호의 여식 민영주, 김두봉의 여식 김상엽 등과 함께 성장했다. 이들의 부친과 가족들은 모두 대중교를 신앙했으며, 특히 김두봉은 나철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사람이었다.

11)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신순호는 1938년 광시성(廣西省) 류저우(柳州)에서 지낼 때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에 참여하여 독립을 위한 선전과 홍보 활동을 담당했다. 이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에 지원하여 선전과에서 활동했다. 선전 대상은 일본군이거나 주로 적 점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일본군내 한국 국적의 사병들이 주요한 대상이었다. 이들에게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된 전단과 벽보를 살포하는 것이 여성광복군들의 주된 임무였다. 신순호는 1942년 9월부터는 부친을 도와 임시정부 생계위원회 회계부에서 일했고, 1945년 8월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정보과에서 근무하였다.

신순호와 박영준의 인연은 독립운동가 집안끼리 맺어진 소위 '동지결혼'으로 맺어졌다. 이들의 인연은 박영준이 박찬익을 찾아 상하이에 갔을 때 신건식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충칭(重慶)에서 머물 때도 박찬익, 신건식, 지청천 세 사람이 생활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신건식과 박찬익은 의형제를 맺었고, 그 자녀들의 결혼도 이어졌다고 한다.



신순호와 박영준의 결혼증서  
 @출처:경기도박물관  
 결혼증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두 사람의 혼인 소개는 민필호와 엄항섭, 혼인 증명은 조소앙, 주례는 김구가 맡았음을 보여준다.

박영준의 회고록 『한강물 다시 흐르고』에는 임시정부 식구들이 대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전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대종교=독립운동’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외세에 대한 투쟁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했듯이 임시정부 요인들 사이에서 대종교는 민족종교로서 신앙하는 분위기였다. 그 배경에는 신규식, 신건식, 박찬익, 민필호 등 양가 어른들이 모두 대종교를 신앙했고, 또한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어천절 기념절을 매년 정례행사로 개최하였기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종교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광복 후에도 이들의 대종교 활동은 이어졌다. 박찬익은 귀국 전 장개석이 여비와 치료비로 준 400만 원을 대종교 경전 간행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신순호는 교육시설 확충과 인재양성 등을 위해 입야 6,000평을 대종교 연수원 부지로 기증하였다. 대종교에서는 신순호에게 ‘대형(大兄)’의 칭호를 내렸다. 대형은 정교에서 상교로 오른 지 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수행이 깊고 교단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교인에게 부여한다. 박영준 역시 대종교유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여 대종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 2) 조완구의 아내 홍정식의 독립운동

홍정식은 풍산 홍씨로 노론 명문가 출신이다. 홍정식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는 못했지만 홍정식의 여식 조규은이 쓴 &#56194;&#56404;고독한 승리&#56194;&#56405;에서 “어머니 홍정식은 남편

대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을 독립운동으로 여겼던 심지 굳센 여성”이라고 했듯이 그녀의 생애를 독립운동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홍정식의 본가도 항일독립운동과 관련 있다. 10살 연상의 오빠 홍범식은 금산 군수로 재직 중 일제의 한국병탄 소식에 울분을 이기지 못해 1910년 8월 29일 10통의 유서를 남겨두고 자결했다. 홍범식의 아들 홍명희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오산학교, 휘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신규식, 박은식과 함께 상하이에서 동제사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시대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 1927년에 신간회 창립 부회장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에도 폭 넓게 행보하였다. 이렇게 집안의 뿌리 깊은 반일의식은 홍정식의 반일의식 형성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산군수 시절의 홍범식(1909)\_1열 가운데  
 @출처: 독립기념관

홍정식의 대종교 입교일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15년 음력 4월에 참교, 1917년 음력 3월에 지교에 올랐고, 홍정식의 여동생 홍근식(洪勤植)도 1917년에 참교에 올랐다.<sup>12)</sup>

홍근식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봉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지교까지 오른 여성은 나철의 부인 기길을 포함해 홍정식, 유정구(柳貞姬), 강의경(姜儀卿), 김덕립(金德履) 등 다섯 명에 불과했다.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성으로서 지교에 올랐다면 대종교 신앙과 활동에 깊이 관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정식의 어린 시절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홍정식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는 나이 어린 소실을 들여왔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늘 근심에 쌓여 지냈다고 한다. 어머니는 점차 마음의 병이 깊어져 홍정식이 13세 되던 해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고, 그 후 홍정식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홍정식은 3살 때 부모가 배필로 정해놓은 조완구와 15살에 초례(醮禮)를 치르고, 17살에 우례(于禮)한 뒤 시집살이에 들어갔다. 시집에는 홀시어머니에 동갑 남편, 10살 된 시동생, 그리고 집안의 하인 몇 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안 살림은 어린 홍정식의 책임이었다. 홍정식은 18살에 첫아들을 낳고, 21살에 둘째, 그리고 1912년 32살에 셋째 딸 규은을 낳았다.

1914년 조완구가 독립운동에 나서면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서울 중구 계동의 집을 정리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해외 이주 자금으로 사용했다. 홍정식은 살림 규모를 줄여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친정의 도

12) 『중문영집』(1922), 대종교총본사.

움을 받아 재동에 작은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완구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서 요시찰 대상이 되었고, 홍정식의 가족들은 늘 일본 헌병보조원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조규은은 아버지가 독립운동 일선에서 역사의 한쪽을 장식하는 동안 늘 뒷전에서 눈에 띄지 않게 내조했던 어머니의 “쓰라리고 애달팠던 꿈”이 있었다고 했다. 가정에서 남편의 부재로 홍정식이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간 32년 동안, 단 2년의 시간을 제외하고 홍정식은 홀몸으로 가족들을 부양했다. 조완구의 독립운동에는 홍정식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고스란히 따른 것이었다.

홍정식 가족은 연변에서 대중교 교인들과 함께 3.13만세시위운동에도 참여했다. 1917년 홍정식은 당시 71세 시모와 세 자식을 데리고 연변 용정에서 조완구를 만났지만 가족의 해후도 잠시, 조완구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상하이로 떠났고, 용정에 남은 홍정식의 가족은 대중교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용정에는 대중교 도사교 김교헌의 가족과 강호석, 연병환의 가족들이 서로 형님, 아우, 오라버니, 누님이라 부르며 각별하게 지냈다. ‘3.13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홍정식의 가족도 대중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홍정식은 용정에서 사는 동안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지만 독립운동가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풍상을 겪으며 홀로 두 딸을 길러냈다. 벌레 먹은 콩을 골라내는 일, 톱밥과 대팩밥을 거두는 일, 판매원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싱거미싱’ 한 대를 월부로 들여 샅바느질을 했다. 다행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돈을 모았으나 제정러시아의 붕괴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1925년 홍정식은 두 딸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자식들의 교육에 매진해, 두 딸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다.

홍정식은 해방의 기쁨을 안지 못한 채 1945년 2월 6일에 영면했다. 평소 “내 눈에 흠 들어가기 전에 왜놈들 망해가는 것을 보고 나라의 독립도 봐야 한다.”고 한을 품고 있었으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조완구가 아내 홍정식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 연락은 1941년 4월로, 홍정식의 회갑 때 보낸 시 한 수였다고 한다.

조완구는 1945년 12월 2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함께 입국했다. 조완구는 민족을 위해 일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조규은은 평생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가족의 짐을 짊어졌던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기렸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조완구를-필자) “왜 따라다니시지 않으셨나”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너무도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신념도 신념이려니와 70이 넘은 병들어 노약하신 조모님과 나이 어린 3남매를 모시고 끌고 다녀야하는 절박한 환경에서 독립운동에 몸 바치신 아버지를 따라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독립운동에 보탬은 될 수 없고 오히려 고통을 드리는 결과만이 남는다는 것을 잘 아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현명한 태도로 생각되어, 그런 안일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괴로운 심정의 이해 부족에 가끔 분노를 느낀다. 물론 한 가족이 모여서 동거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함은 우리라고 못 느끼는 일이 아니나 그럴 수 없던 우리의 처지를 나는 괴로워하고 후회도 해 본다.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독립운동정신에 위배됨을 느낀 우리 어머니의 의지와 신념에 경탄할 뿐이다. 물론 가족이 모여서 동거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함은 우리라고 못

느끼는 일이 아니나 그럴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나는 괴로워하고 후회도 해 본다.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독립운동정신에 위배됨을 느낀 우리 어머니의 의지와 신념에 경탄할 뿐이다.”<sup>13)</sup>

조규은은 조완구를 “혁명가”로, 홍정식을 “혁명가의 아내”로 표현했다. 홍정식은 조완구의 내조자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일생을 살았지만 그 내조를 독립운동이라고 여겼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그 대로였다.

### 3) 이함(李涵)의 독립운동

이함은 1902년경에 출생하였다. 1922년경 대한군정서 인사국장 정신(鄭信, 1898~1931)과 결혼하였다. 『대중교중광육십년사』의 「정신의 약력」에 따르면 이함은 동아·조선일보 동삼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특파기자로 활동했다.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이함은 정신과 함께 만주답사에 올랐고, 이를 『조선일보』에 총 43회에 달하는 답사록을 본인의 이름으로 연재한 사실이 있다.

정신은 독립운동가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898년 함경남도 홍원(洪源) 출생으로, 독립운동 중에 정운(鄭潤)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했다. 일제에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서일과 함께 중광단을 설립하고, 1919년에는 대한정의단을 설립했고,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총재부 인사국장의 중임을 맡았다. 청산리전투 이후로는 영안현에서 김교헌과 함께 민족운동 세력을 결집하고자 대중교부흥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1923년 김교헌의 저술서 『신단민사』, 『배달족역사』 등을 상하이에서 출판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정신도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총괄한 『사지통속고(史誌通俗攷)』를 저술하여 출간하였다. 1924년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을 역임했고, 이후 다시 만주로 건너가 1925년에 김좌진, 김혁 등과 함께 신민부를 거쳐 1930년에는 한족총연합회를 창설하였다.

정신의 항일운동에 이함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할 무렵 정신은 대중교에서 중임을 맡고 있었기에 이함 역시 대중교와 밀접하게 관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함의 항일운동 기록은 20세인 1919년에 북간도의 ‘3·13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한 것부터 확인된다. 이함은 왕청현 백초구(百草溝)에서 열린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했는데, 당시 1,200여 명의 동포들이 모였고, 대중교에서 계화(桂和), 구자선(具子善) 등이 연사로 나와 독립쟁취에 관한 웅변을 이어갔다. 『독립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함도 연단에 나와 강개한 연설로 수많은 동포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했다고 한다.<sup>14)</sup>

이어 4월에 이함은 간도에국부인회를 발기하고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sup>15)</sup>

13) 조규은, 『고독한 승리』, 한민출판사, 1993, 55~56쪽.

14) 『간도부인애국회(懇島婦人愛國會)』, 『독립신문』, 1922, 11. 30.

15) 박용옥의 『여성사』에서 이함의 간도부인애국회는 1921년 4월에 발기하여 1923년 11월 현재 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확인된다(박용옥,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8쪽). 위의 본문 인용문을 ①②③으로 구분하고 각각 연도를 밝혔듯이 백초구에 있었던 ‘독립선언축하식’은 1919년이며 간도부인애국회도 그 해에 발기하였다.

이함의 부인회 활동과 관련해 1922년 11월 30일자 『독립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을 위해 연도와 활동을 비교하여 번호를 따라 기사를 분류하였다.

“①연전(年前)에(1919년-필자주) 북간도 왕청현 백초구에서 독립선언축하식을 거행할 때 당시 십 팔 세의 머리를 땀은 여자 李涵(지금은 정신 씨와 결혼하였음)이란 이가 강개하고 열렬한 연설로써 수만의 군중을 감읍케 하고,

②그해 사월(1919년 4월-필자 주)부터 부인애국회를 발기하여 그후 회원이 삼천여명에 달하였다. 동 여사는 그해 6월경 본국 회령지방에 건너 갔다가 적경에게 잡혀 일주간이나 갖은 악형을 당하나 종시 함구무언함으로 적은 증거를 잡지 못하여 곧 놓아 보냈는데, 그는 간도에 돌아온 후에 다시 부인회의 사업을 위하여 각처로 다니며 활동하더니 재작년(1920년-필자 주) 가을 북간도의 참삼이 생김으로(경신참변-필자 주) 인하여 동 부인회도 많은 타격을 받는 중,

③동 여사는 작년(1921년-필자 주) 5월에 다시 적경에게 잡혀 또한 1주간이나 악형을 받았되 종시 발설치 아니하였음으로 적은 마침내 아무 증거를 잡지 못하고 그를 방면하였는데 동 부인애국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하더라.”<sup>16)</sup>

즉, 이함은 1919년 3월 독립선언축하식에 나선 이후 4월에 간도애국부인회를 발기하였다. 이때 모인 여성회원은 3천여 명에 달했다. 이함은 그해 6월 애국부인회 활동으로 함경북도 회령(會寧)에 들어갔다가 일본경찰에 잡혀 일주일 동안 악형을 당했고, 간도로 돌아온 후에도 각 지역을 다니며 활동하다가 1921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길림에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선포와 함께 국외 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독립운동단체가 일제히 결성되고 있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 신한촌에서는 이미 1914년부터 이의순(李義攄), 채계복(蔡桂福), 이혜주(李惠柱) 등 기독교인이 주체가 된 부인회가 활동 중에 있었고, 훈춘에서는 9월에 주신태(朱信德)을 회장으로 한 대한애국부인회가 있었다. 간도에서 이함은 이미 4월부터 간도부인애국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는 이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근자에 북간도 모지방에서는 삼천여 명의 조선여자로 조직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발생되었는데 그들의 사상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목적하고 (중략) 그 회 회장으로 있는 이(李) 모씨는 금년에 21세의 묘령 여자로서 그의 용변은 과연 천재가 있어 부인계의 걸출이라고 말할만한 여장부인데, 그는 일찍이 일본 경관에게 두 번이나 피착되어 무수한 악형을 당하였고, 그는 굳세운 다음으로 죽기를 한하고 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하여 무사히 방면된 바, 그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원조하는 중이라더라.”<sup>17)</sup>

16) 「간도부인애국회(關島婦人愛國會)」, 『독립신문』, 1922. 11. 30.

17) 「간도에 애국부인회」, 『조선일보』, 1922. 12. 12.

이함을 ‘21세 묘령의 여자’ 혹은 ‘부인계의 걸출한 여장부’ 라고 표현했듯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함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며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것 같다.



『독립신문』에 소개된 간도부인애국회의 설립취지와 취지서, 본회강령 (독립신문, 1922. 11. 30)

이함의 항일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항일운동과 여성운동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다. 간도부인애국회의 발기 「취지문」에는 “여자의 몸으로 남자와 같이 무기를 메고 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천만 민족의 반수를 점함은 사실인즉, 우리 여자의 신상에도 독립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은 더 말할 것이 아니로다.”라며, 만일 여성들이 이런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면 여자들은 숨이 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이 여자에게는 교육의 보급이 못됨으로 그 지키는바 쌀 되박이오, 헤아리는 것은 밥순가락이라. 여자들은 부역에 있어서 방안의 일도 참여치 못하니 어찌 나랏일에 미치겠는가. 그러므로 그저 아비나 아들이 군사에 뽑힌다고 하면 옷자락을 잡고 눈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며 여성들이 남편 내조와 아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독립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간도부인애국회의 활동은 그 회의 강령인 “첫째, 인도(人道)와 정의(正義)를 부식(扶植)할 것, 둘째, 여자계의 사상을 진기(振起)할 것, 셋째, 독립군 후원에 종사할 것”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군자금 모금, 여성교육 등을 전개하며 활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3년 1월 1일 자 『독립신문』 「공하신년(恭賀新年)」에는 서간도 통의부, 의용군사령부, 대한독립군본부, 대중교시교회 등과 함께 ‘북간도부인애국회’도 신년 인사를 올리는 단체로 이름이 올라있다.

이함은 일본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기도 했다. 1923년 11월 5일, 일본경찰 30여 명이 왕청현 삼차구(三岔溝)에 있는 이함의 집을 습격하여 정신이 상하이에서 보낸 『신단민사』 1백 30권을 압수해간 일도 있었다. 당시 이함은 독립운동가이자 작은아버지 이단(李檀)과 함께 일경의 추적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지만 작은어머니 여근(余謹)은 생명이 위험할 만큼 일경의 모진 폭행을 받았다.<sup>18)</sup> 이후로 이함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없는 것을 볼 때 간도부인애국회도 점차 소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함은 정신이 있는 상하이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한 정신과 함께 만주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함과 정신은 항일의식 고취를 위해 단조기념관을 건축하기로 발기하고, 1924년 10월 15일부터 북만주 영고탑에서 시작하여 1926년 2월 13일까지 1년 4개월간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 중 정신은 각 지

18) 「신단민사를 다수 압수」, 『동아일보』, 1923.11.26.

역 동포사회를 방문해 단군 한배검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강연과 성금 모금에 나섰고, 이함은 만주 지역에 우리 역사의 유적과 명산대천의 전래 사실 등을 면밀히 살펴 이를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이함의 만주답사기는 1년 반 동안 총 4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답사기에는 동포들의 생활 상태와 수전 농작지의 수확과 분량, 교육, 경제 방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여 당시 동포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이후의 이함의 행적은 사료 결핍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신이 신민부를 거쳐 한족총연합회를 통해 항일운동을 계속했듯이 이함도 정신과 함께 항일운동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1931년 1월 정신이 피살되자 이함과 유아도 행방불명되었다는 기록만 전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종교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대종교를 신앙했다. 이시영, 조완구, 이동녕, 조성환, 박찬익, 신건식, 김두봉 등 임정 요인들은 모두 신앙했고, 가족들의 신앙과 독립운동을 계승한 딸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만주에서 여성 대종교 교인들의 독립운동은 남성들의 참여 방식과 달랐다.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전투의 후방 지원자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런 점에서 조완구의 아내 홍정식의 내조, 그리고 청산리전투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아내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에 대종교의 남성들은 지도부에서 일반 교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민족의식은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함과 정신처럼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문제를 함께 인식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그러나 민족 내부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유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인은 3/2 이상 대종교에서 참여했다. 선언서에 “한 집안을 기울여 나라가 회복된다면 3천리 옥토가 모두 자기 집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한마음 한 뜻의 2천만 형제자매여!”라는 내용이 있듯이 항일독립운동은 민족의 영웅들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족의 내조와 희생이 동반된 것이었다. 이러한 희생 또한 ‘대종교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옥형 혹은 옥사로 직접 이어지거나 항일전투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독립운동가 남편의 아내로서, 독립운동가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했다. 형태와 크기는 달랐지만 여성들의 민족해방에 대한 염원은 남성 독립운동가와 다르지 않았다.

만주에 있었던 윤세복과 대종교총본사 지도부는 해방을 맞이해 1946년 환국했다. 국내에서 새로운 중흥을 모색하면서 1969년 2월 23일 대종교에서는 처음으로 대종교부녀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대종교총본사 총전교에 나철 대종사의 종손부가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참고문헌】

- 「女子의 一片丹誠」, 『독립신문』, 1921. 2. 5.  
 「壟島婦人愛國會」, 『독립신문』, 1922. 11. 30.  
 「신단민사를 다수압수」, 『동아일보』, 1923. 11. 26  
 「鄭氏의 祖疆踏査」, 『조선일보』 석간, 1923. 10. 9.  
 「上海로서 滿洲까지」 연재 42회, 『조선일보』;(1924. 12. 6~1926. 3. 10)  
 「진중일지」, 『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만정부총무사조사과, 『在滿朝鮮人情』, 1933.  
  
 『대종교증광육십년사』, 대종교총본사, 1971.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서문성, 『원불교 이해』2, 원불교출판사, 2008.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30, 2003.  
 이우석, 『(청산리 대첩)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2013.  
 이윤옥,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얼레빗, 2018.  
 정원택, 『지산외유일기』, 탐구사, 1983.  
 조규은, 『고독한 승리』, 한민출판사, 1993.  
 조창용, 『백농실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강대덕, 「독립운동가 尹熙順의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강원사학』25, 2011.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29, 2018.  
 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52, 2000.  
 이숙화, 「대한군정서의 성립과 독립군단 통합운동 -총재 서일의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6, 2017.  
 조규태, 「일제강점기 서울지역 천도교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郷土서울』 70, 2007.  
 진혜숙, 「조선후기 여성계몽교육운동에 관한 고찰」, 『배화논총』 21, 2002.  
 최봉룡, 「1920~30년대 만주지역 한인사회주의운동과 종교-종교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한시준, 「여성광복군과 그들의 활동」, 『사학지』 37, 2005.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제 II

---

---

**동북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  
—그들의 역할과 의미**

---

---

리광인(前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교수, 역사 연구자)

## 1. 머리말

올해 2020년은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5돐, 광복 75돐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항전승리 75돐—광복 75돐을 맞으며 우리는 항전의 승리,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수천수만의 항일지사들을 심심히 그리게 된다. 그들 가운데는 당년 조선인(한국인)들로부터 만주라 불리운 동북에서 손에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우다가 쓰러진 조선민족(한민족)의 아들딸들이 아주 많았다.

그때 그 세월 동만(연변)과 남만, 북만으로 헤아려지는 동북항일련군 여러 부대들에는 조선족 여전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족 여전사들은 중조(중한) 두 나라 인민의 해방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식도 가족도 돌볼 겨를이 없이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총대를 잡고 불귀의 길에서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선뜻이 바쳐 자랑스럽고 눈물겨운 역사를 썼다.

동북항일련군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로서 도합 11개군, 4만여 명(전성기를 이룰 때)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제1군과 2군, 3군, 6군, 7군은 중국공산당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본 지구 항일유격대의 토대우에서, 제4군과 5군은 왕덕림(王德林)의 항일구국군과 이두(李杜)의 부분적 항일자위군을 토대로 조직되었다. 그후의 제8군과 9군, 10군, 11군은 각지 여러 지방 항일의용군 일부와 항일산림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이는 항일련군 11개 군의 구성요소가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북항일련군 제1군부터 7군까지의 발전 역사를 보면 그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항일유격대 시기와 동북인민혁명군 시기, 항일련군 시기란 3차의 발전과정을 거치었다. 그중 항일련군 제2군을 실례를 들면 2군부대는 설립시초 거개가 조선이주민들로부터 북간도, 또는 동만으로 불리운 연변의 조선족 아들딸로 조직되고 연길, 화룡, 훈춘, 왕청 등 4개 현 항일유격대를 토대로 발전한 동북항일무장력으로 알려진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이제 본문 아래 부분에서 보다 펼쳐지지만, 동북항일련군으로 발전하기까지 제2군 역사만을 보아도 항일유격대 시기부터 연길, 화룡, 훈춘, 왕청 4개 현 항일유격대 모두 마다에 조선족 여전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본문은 머리말에서 동북항일련군의 제1군부터 7군까지를 실례로 들면서 동북항일련군은 항일유격대 시기와 동북인민혁명군 시기, 항일련군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 장대하였음을 스치며 지나 보았다. 본문은 이제 머리말에 이에 본격적인 연구과정으로 항일련군의 제1군부터 제11군까지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 군에서 활동한 조선족 여전사들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펼쳐게 된다. 따라서 그네들의 역할과 의미를 힘자라는대로 드러내게 된다.

## 2. 북간도—동만서 떠오른 항일련군 제2군

중국공산당이 지도한 길림 연변, 즉 그 시절 북간도—동만에서의 유격대활동은 화룡현 개산툰유격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 4월에 중공만주성위 순시원 박윤서(朴允瑞, 항일열사)에 의해 개산툰에 황포군관학교 출신 장자관(&#24352;子&#23485;)을 당소조장으로 하는 중공개산툰 당소조가 조직되고, 그해 6월에 개산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그 뒤 당해 7월과 8월 사이에 화룡현 평강구유격대와 왕청현 라자구유격대, 돈화현 유격대가 육속 조직되었다. 1931년 9.18사변 전 이런 유격대를 일반적으로 보통 홍색유격대나 노농유격대로 부른다.

1931년 9.18사변후 연변의 인민무장력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는 데로 발전하였다. 항일유격대는 9.18사변 전 홍색유격대나 노농유격대를 토대로 하여 조직되었거나 재건된 신형의 항일무장력이었다. 이에 급해 난 일제침략자들은 1932년 4월에 대량의 일본정규군을 연변에 집결시켜 대“소탕”을 벌리었지만 거세게 떠오르는 항일의 불길을 꺼버릴 수 없었다.

그해 1932년 가을부터 연변 각지에 항일유격대거지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가을과 겨울에 연변 4개 현에 당 현위군사부가 지도하는 현 항일유격대가 창립되어 “중국노농홍군 제32군 동만유격대”의 명의를 띠고 맹활동을 벌리었다. 1933년 초 이후 연길, 화룡, 왕청, 훈춘 4개 현 유격대는 각기 대대로 발전되어 400여 명(그중 조선족이 90%)에 달하였다. 한편 건설한 공산당원들을 여러 항일구국군에 들여 보내어 배합작전을 도모하였다.

1934년 3월, 연변의 4개 현 유격대대는 중공동만특위의 지도하에서 현마다 일부 항일구국군 부대를 흡수하여 주진(朱&#38215;, 후에 반변)을 사장으로 하고, 왕덕태(王德泰)를 정위로 하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독립사로 발전하여 사 아래에 4개 련대, 1개 유격대대를 두었다. 1935년 5월 30일에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부가 정식으로 조직(1)되었다. 총병력은 1200여명으로서 조선족이 65%를 차지(2)하였다.

1936년 3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동북항일련군 제2군으로 개편되었다. 제2군 산하에 3개 사를 두었는데, 연길련대 제1련대가 일부 항일구국군 부대와 더불어 제1사로, 왕청련대 제3련대와 훈춘련대 제4련대가 항일구국군 사총항부대와 더불어 제2사로, 화룡련대 제2련대가 항일구국군 부대와 더불어 제3사로 개편되었다. 몇달 뒤 1936년 7월에는 남만의 항일련군 제1군과 함께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으로 재편성되면서 제2군의 1, 2, 3 세개 사는 각기 4, 5, 6사로 부름을 달리하였다.

동북항일련군 제1군과 제2군을 합치어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으로 편성될 때 제2군의 병력은 도합 2000여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조선족이 50%(3)을 이루었고 조선족 여전사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족 여전사들은 항일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 항일련군 세개 발전시기를 거치면서 주로 여러 련대와 사의 재봉대원과 작식대원으로 활약하였고, 화룡련대 시절의 김정옥(항일열사)과 연길련대 시절의 허성숙(항일열사) 등 부분적 여전사들은 직접 총을 메고 항일의 싸움터에서 싸워나갔다.

### 3. 남만과 북만의 여러 항일련군 부대들

남만의 제1군을 보면 1930년 7월과 8월 사이 남만의 반석, 유하, 청원 등지에는 선후로 중국공산당 3개 현위나 중심현위가 조직되었는데 3개 현위의 서기는 황포군관학교 출신과 지방 조선족혁명가들인 박봉과 리창일, 안일상 등(4)이 맡고 현위 주요한 구성원들이 조선인들로 이루어졌다.

1931년 9.18사변후 중공반석중심현위에서는 무장투쟁을 벌리라는 만주성위의 지시정신에 따라 조선인 7명으로 적위대를 조직하고 이홍광을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적위대가 1932년 1월 이후 선후로 반석노농유격대와 반석노농의용군으로 개편되고, 1933년 9월 18일에 반석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독립사로 개편되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이 정식 편성된 것은 1934년 11월 7일, 그후 1936년 7월, 동북항일련군 제1군으로 개편(5)되기에 이른다.

북만에서는 1930년 8월 중공북만특위의 지도로 주하현에 당의 첫 지부가 조직되었다. 9월에 주하특별위원회로, 10월에는 주하현위가 조직, 서기와 조직, 선전위원 모두가 조선족으로 구성되었다. 1932년 6월 주하중심현위로 부상하고 현위위원 5명이 모두 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그중 현위서기 지희겸, 조직부장 최동범 즉 리복림, 군사위원이 김책, 부녀위원이 후일 중국홍군의 고급장령으로 떠오른 양림의 아내 리추악이었다(6)

1933년 10월 10일에 당이 지도하는 주하동북반일유격대(즉 주하유격대)가 조직되었다. 대장은 조상지, 서기는 조선인 리복림. 조직위원은 리계동, 13명 대원 중 조선인 9명(7)이다. 이 유격대가 1934년 6월에 동북반일유격대하동지대로 발전되었는데 조선인 김책, 리복림, 리계동, 리근식 등이 하동지대의 주요 지도성원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하동지대는 그후 1935년 1월 28일,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으로, 1936년 8월 1일 동북항일련군 제3군으로 발전(8)하였다.

1932년 10월 10일, 중공 탕원중심현위에서는 조선족 중심현위서기 배치운(裴治云)의 지도하에서 현성의 반절하촌(半截河村)에서 30여명의 조선족청년과 7명의 중국인으로 “중국노농홍군 제33군 탕원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이들 40명 모두가 공산당원과 공청단원들이었다. 이 탕원유격대가 그후 탕원민중반일유격총대로, 1936년 1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즉 동북항일련군 제6군)으로 개편(9)되었다.

항일련군 제7군의 시초는 북만의 요하현으로부터 시작된다. 1932년 7~8월경에 중공요하중심현위에서는 보청현 소성자구에 항일유격대 건립을 목표로 하는 군정강습소를 꾸리었다. 군정강습소 책임자가 중공요하중심현위 책임자 최용건이었다. 최용건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서 그 시절 김지강으로 통하다가 최석천으로 불리었다. 그해 10월에 최용건은 자기와 조선족 당원 5명으로 요하지구의 첫 항일무장대오인 특무대를 조직하였다. 그후 5개월 만에 특무대는 40여명으로 발전하였다. 1933년 4월 21일에는 요하노농의용군으로 발전하고 1936년 11월 15일 동북항일련군 제7군으로 발전(10)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항일련군 제1군의 전신은 남만유격대로 알려진 반석유격대이고 제2군의 전신은 연변 4개 현의 연길현유격대, 화룡현유격대, 왕청현유격대, 훈춘현유격대이며 제3군은 주하유격대, 제4군과 5군은 녕안유격대, 밀산유격대, 목룡유격대, 제6군은 탕원유격대, 제7군은 요하유격대가 시초를 이룬 전신임을 잘 알 수가 있다. 또, 여러 항일유격대와 유격대를 조직한 본 지구의 당조직 구성원 대

부분이 조선인들이었다.

후에 여러 의용군부대들과 항일구국군 부대들이 우리 항일부대에 많이 흡수되면서 동북인민혁명군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사람 비례가 많이 내려갔지만 항일유격대 시기와 동북인민혁명군 시기 많고 많은 조선민족의 아들딸들이 항일무장투쟁에 쫓기(길림 연변 항일열사명부에 오른 2800여명의 항일열사 거의가 조선족)하였다. 그 가운데 조선족 여전사들만도 어림잡아 수백명을 이루었다.

### 4.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

동북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은 흔히 소속 군의 부녀대, 부녀중대, 부녀대대, 녀성련대에 소속되지 않으면 군과 사 재봉대(즉 흔히 말하는 피복창)들에 소속되었다. 일부는 중공길동성위와 북만성위 비서처 비서로 근무하였다. 항일련군 제2군 6사의 부녀중대와 제5군의 부녀련대, 제7군의 부녀대대 등이 그 돌출한 실례들이다. 아래 기성역사자료가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지금까지 거듭되는 연구, 역사건증인들과의 취재와 자료 발굴로 한명 한명 누적해 온 항일련군 1군부터 7군까지 조선족 여전사들을 가슴 뜨거이 호명하여 보기로 한다.

#### ㄱ. 항일련군 제1군:

- 이부평 (李富平, 남만의 영웅어머니)
- 조오선 (趙吾善, 장백의 영웅어머니)
- 김려옥 (金麗玉, 항일련군 제1군 여전사)
- 김로숙 (金魯淑, 항일련군 제1로군 재봉대 대장, 후방기지 책임자, 리동광의 안혜)
- 박영자와 안희숙 (朴英子和安姬淑, 항일련군 제1군 두 여전사)
- 선옥이와 옥숙 (善玉和玉淑, 항일련군 제1군 두 여전사)
- 이윤화 (李允華, 항일련군 제1군 여전사)
- 정인숙 (鄭仁淑, 항일련군 제1군 여전사)
- 윤금순 (尹今順, 항일련군 제1군 여전사)
- 신 관 (申 官, 항일련군 제1군 여전사)

#### ㄴ. 항일련군 제2군:

- 오철순 (吳哲順,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 허성숙 (許成淑, 항일련군 제1로군 제4사 여전사)
- 이경희 (李京姬,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 안희숙 (安姬淑,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 오채금 (吳彩金,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 김승녀 (金勝女,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 김정안 (金貞安,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김철호 (金哲浩,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황순희 (黄顺姬,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김명숙 (金明淑,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이정인 (李贞仁, 항일련군 제2군 제4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이신금 (李信今, 항일련군 제2군 제5사 여전사)  
 이심순 (李深顺,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독립사 제4련대 여전사)  
 안순화 (安顺花,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4련대 여전사)  
 안희숙 (安姬淑,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독립사 제1~제2련대 연합 재봉대 대장)  
 김정숙 (金贞淑, 항일련군 제2군 제5사 여전사)  
 김순희 (金顺姬, 항일련군 제2군 제5사 여전사)  
 이승녀 (李胜女, 항일련군 제2군 제5사 여전사)  
 허정숙 (许贞淑, 항일련군 제2군 제5사 여전사)  
 이계순 (李桂顺,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최희숙 (崔姬淑, 항일련군 제1로군 제2방면군 재봉대 대장)  
 김확실 (金确实,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박록금 (朴录今,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부녀중대 중대장)  
 박수환 (朴寿环,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김수복 (金寿福,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김정옥 (金贞玉,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독립사 제3련대 여전사)  
 박할머니 (朴大娘, 화룡현유격대 작식대원)  
 오옥경 (吴玉京,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영웅어머니)  
 김 선 (金 善,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정인숙 (郑仁淑,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김명화 (金明花,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조선으로 귀국)  
 정승녀 (郑胜女,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박영애 (朴英爱,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이귀녀 (李贵女,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김보배 (金宝贝,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허순단 (许顺丹,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이순혜 (李顺惠,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마국화 (马国花,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최장숙 (崔长淑,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안정숙 (安贞淑,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김혜순 (金惠顺,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서순옥 (徐顺玉,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장철구 (张哲九, 항일련군 제2군 6사 사령부 작식대원, 조선으로 귀국)  
 박정숙 (朴贞淑, 항일련군 제2군 제6사 여전사)  
 최순산 (崔顺山, 항일련군 제2군 6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박정숙 (朴贞淑, 항일련군 제2군 6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전 희 (全 姬, 항일련군 제2군 6사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㉔. 항일련군 제3군:**

이추악 (李秋岳, 저명한 항일민족영웅)  
 진정산 (陈静山, 항일련군 제3군 제1임 재봉대 대장)  
 장의숙 (张义淑, 항일련군 제3군 제2임 재봉대 대장)  
 김백문 (金伯文,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당지부서기)  
 강신옥 (姜信玉,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홍명숙 (洪明淑,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김벽영 (金碧蓉,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장희숙 (张姬淑,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장경숙 (张京淑,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金玉선 (金玉善,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박경숙 (朴京淑,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김옥순 (金玉顺, 항일련군 제3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이종부 (李钟孚,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김호련 (金浩莲, 항일련군 제3군 재봉대 여전사)  
 이종옥 (李钟玉, 항일련군 제3군 여전사)  
 손장옥 (孙长玉, 항일련군 제3군 여전사)  
 이은도 (李恩道, 항일련군 제3군 여전사)

**㉕. 항일련군 제4군:**

허현숙 (许贤淑, 항일련군 제4군—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안순복 (安顺福, 항일련군 제4군 재봉대 대장, 부녀련대 주요책임자)  
 이근숙 (李根淑, 항일련군 제4군 여전사)  
 키다리 박씨 (大朴, 항일련군 제4군 여전사)

**㉖. 항일련군 제5군:**

임정옥 (林贞玉,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 여전사)  
 이봉선 (李凤善,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최순선 (崔顺善,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주신옥 (朱信玉,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곽영순 (郭英顺,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이영숙 (李英淑,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김 씨 (金 氏,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최수선 (崔秀仙,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류경희 (柳京姬, 항일련군 제5군 부녀련대 여전사)

류명옥 (柳明玉, 항일련군 제2로군 전사, 조선으로 귀국)  
 김순희 (金順姬, 항일련군 제2로군 전사, 조선으로 귀국)  
 김성옥 (金成玉, 항일련군 제2로군 전사, 조선으로 귀국)  
 박은주 (朴銀珠, 항일련군 제5군 여전사)

**비. 항일련군 제6군:**

배성춘 (裴成春, 항일련군 제6군 재봉대 대장)  
 이재덕 (李在德, 항일련군 제6군 재봉대 여전사)  
 박영선 (朴英善, 항일련군 제6군 재봉대 여전사)  
 이 민 (李 敏, 항일련군 제6군 재봉대 여전사)  
 박정희 (朴貞姬, 길동성위 비서처 여전사)  
 장옥춘 (張玉春, 항일련군 제6군 여전사)  
 김봉숙 (金鳳淑, 항일련군 제6군 여전사)  
 이영근 (李英根, 항일련군 제6군 여전사)  
 심영신 (沈英信, 항일련군 제6군 여전사)

**스. 항일련군 제7군:**

심영숙 (沈英淑, 항일련군 제7군 부녀대대 부대대장)  
 김 철 (金 哲,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최용희 (崔蓉姬,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김영숙 영웅부부 (金英淑)  
 김순희 (金順姬,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박경옥 (朴京玉,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안정숙 (安貞淑,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허창숙 (許昌淑,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이영숙 (李英淑,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전순희 (全順姬,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신련옥 (申蓮玉, 항일련군 제7군 여전사)

**오. 항일련군 제8군:**

김인숙 (金仁淑, 항일련군 제8군1사 정치부주임)

**즈. 항일련군 제9군:**

이영숙 (李英淑, 항일련군 제9군 여전사, 조선으로 귀국)

오늘날 헤아려 볼 수 있는 동북항일련군 여전사 110여명, 이들은 수백명 조선족 여전사들 가운데의 일 부분으로서 일본침략자를 때려 부시는 동북항일무장투쟁에서 자못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관련 자료 에 따르면 1931년 항일유격대 시절부터 1945년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침략군은 우리 항일유격 대와 항일의용군, 동북인민혁명군, 항일련군 부대들에 의해 17만여 명의 살상자를 내었다. 위만군 살 상자 만도 5만여 명에 달한다. 항일련군 부대들은 3만여 명의 살상대가를 냈다. 그중 사급 이상의 항 일장병들이 조선족장령 수십 명을 포괄해 100여 명에 달하며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 희생자는 수 백명(11)에 이른다.

항일련군 여전사 리민의 회고에 따르면 쓰련 경내에서 훈련하던 항일련군 부대들이 1945년 8월, 쓰련 홍군을 배합하여 동북으로 진출할 때 조선족 여전사들은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60여 명 중 상당 수 여전사들은 소속부대를 따라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중국에 남은 분들은 김백문, 이재덕, 이민, 이윤 화, 김선, 김옥선, 이영근, 신련옥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 모두 세 월의 흐름 속에서 선후하여 세상을 하직하셨다.

여기 60여 명이란 이 수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 대부분이 일제놈들과의 가 련치절한 싸움터에서 희생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길림성부녀연합회에서 1983년 5월에 편찬한 자료집 —“길림성여열사영명록(英名錄)”을 보면 항일전쟁시기 희생된 길림성 여항일열사가 328명으로 알려 진다.

그들중 한둘을 제외한 모두가 조선족 여열사로서 유격대원과 동북인민혁명군 전사로 희생된 열사가 88명, 항일련군 여전사로 희생된 열사가 26명으로 나온다. 물론 이는 해방후 나라에서 발급한 열사증 서와 나라의 항일열사명부에 오른 열사만을 가리킨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열사증서를 받지 못한 항일 여열사들은 더욱 많다.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음은 1931년 9.18사변후로부터 1945년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웅근 14년간 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우리 조선족 여전사들은 그토록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변절한 여전사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 그런 변절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5. 그 시절 눈물겨운 여전사들의 생활

### ㄱ. 달거리와 임신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은 그야말로 강자들이었다. 그런 그네들도 항일의 싸움터에서 가장 두려 워하는 점이 있었으니 여성의 특유의 생리현상인 달거리와 임신이라 하겠다. 여전사들은 강철의 여인 들이라 해도 생리는 비켜 갈수 없이 그냥 걸러야 하는데 간고한 년대에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여 달거 리가 있을 때면 보통 헌천으로 장방형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다 탄 재거나 붓나무껍질안의 “화화 섬유” 같은 물질을 한오리 한오리 쪼개고 그 가운데의 “근골”을 비벼서 나른해지게 한 다음 위생지체 럼 만들어 팬티 안에 받쳐서 썼다. 그러노라니 흔히 다리가 쓰러서 상하거나 위생적이 못되어 많은 여 전사들이 오래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은 부인병에 걸렸다.

## 나. 해산 후

바라지 않은 임신도 골치거리이고 해산 후도 문제. 지방에서 활동할 땐 지방군중들과의 협력속에서 부대를 따르지 못할 철부지들을 지방군중들에게 위탁할 수도 있었지만 산속 밀영생활과 전이생활에서는 지방군중들과 접촉할 수도 또 누구에게 위탁할 수도 없었다. 적 “토벌대”와 조우할 때 철 모르는 아기들이 울어대면 독한 마음으로 아편을 먹이거나 입을 틀어막거나 물속에 누르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기들은 혹여 명이 길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죽고 말았다. 아기가진 항일련군 여전사들이 있는 곳이면 동만이나 남만이나 북만이나 어딜 가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 다. 재봉기와 화식그릇

항일련군 여전사들은 거의가 재봉대원이거나 부대의 화식을 도맡은데서 전이할 때면 남전사들과 달리 재봉기와 화식도구들을 더 이고지고 나서니 그 고생이야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금방 죽이나 풀죽을 끓이는데 토벌대들이 들이 닥치면 그 가마를 그대로 이고 가다가 더운 죽에 뜨거운 가마에 머리를 데우기가 십상. 그래도 그네들은 바쁘다는 말 한마디, 고생스럽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진짜 강자의 강자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시대가 우리 여성들을 강자로 강철 여인으로 만들었다.

## 6. 항일련군 여전사들 대표적 인물과 단체

이런 강자들 속에서 항일련군의 대표적 인물로 불리는 2군 제2방면군 재봉대 대장 최희숙, 항일영웅 조일만(趙一曼)과 더불어 동북의 “헤이바이 이리”(黑白二李)로, 두 녀중호걸(巾幗英雄)로 떠오른 이추악, 6군 재봉대 대장 배성춘 등이 있다면 대표적 단체로는 박록금을 중대장으로 하는 2군 6사 부녀중대, 5군 여전사들로 이루어진 항일련군부녀련대, 부녀련대 8녀투강중 안순복, 이봉선. 부녀련대 여섯 여전사 최후, 7군 부녀대대 등 불멸의 항일영웅들이 용솟음쳤다.

ㄱ. 1936년 4월 무송 만강 수립 속에서 탄생한 2군 6사 부녀중대. 이들 6사 부녀중대에는 여전사들인 박록금, 최희숙, 박수환, 김확실, 김수복 등 항일열사들이 들어있다.

ㄴ. 1936년 봄 조직된 5군 부녀탄. 시초 부녀탄의 거의 모든 여전사들은 동만의 왕청탄, 훈춘탄 출신들인 조선족 여전사들.

ㄷ. 1938년 10월의 팔녀투강 영웅들. 오늘의 목단강시 림구현(林口县) 경내 우수훈하에서 생겨난 팔녀투강 영웅들중 4군 재봉대 대장 안순복과 5군 여전사 이봉선은 조선족 여전사.

ㄹ. 부녀탄 여섯 여전사 최후. 1940년 1월 북만 보청현 경내 한차례 전투에서 불행히 체포되어 희생된 주신옥, 최순선, 류영(劉英), 광영순, 편련화, 최정숙 등 6명 여전사들(12)중 주신옥, 최순선, 광영순, 최정숙 등 4명은 조선족 여전사들.

ㅁ. 7군 부녀대대와 부대대장 심영숙

## 7. 맺음말

중국공산당은 동북항일련군의 간고한 투쟁에 대하여 일찍 고도의 평가를 내리었다. 1938년 11월에 중국공산당 6기6중 확대전회에서는 동북의 동포들에게 전문을 날리면서 동북항일군대는 “찬바람 몰아치는 맵짠 눈설속에서 고생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적들과 7년 남아 선회하면서 간고하게 분투한 모범”(在冰天雪地与敌周旋7年多的不怕困苦艰难奋斗之模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48년 1월 1일, 중공중앙동북국에선 동북항일련군의 역사적 업적을 표창하면서 전문 결정을 내려 동북항일련군의 영웅한 투쟁은 “중국공산당 영광스런 역사의 불가분리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같은 평가 속에는 항일련군 여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평가도 함께 들어 있으니 그네들은 명실공히 중국 항일 여전사들의 자랑이었다.

동북항일련군 조선족 여전사들의 역할과 의미를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해 볼 수 있다.

1. 동북항일련군 여전사들의 주체는 조선족 여전사들이었다. 항일련군에서의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여러 군과 사,련대의 재봉대원과 작식대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여전사들이 맡아 나선 재봉대와 작식대는 항일련군 부대의 주요한 한 갈래였다. 항일련군 제1군부터 제7군에 이르는 군과 사의 재봉대 책임자들과 여전사들 대부분은 조선여성들이었다.

2. 항일련군의 재봉대원들은 소속부대의 작식대원과 후방병원 간호원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재봉대원이기도 하고 작식대원, 간호원이기도 하였다.

3. 여러 중국공산당 성위의 비서처 여전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일례로 중공길동성위 비서처를 예로 들수 있다. 항일련군 제4군과 5군, 7군과 8군 등을 지도하는 중공길동성위는 그 산하에 전문 비서처를 두었는데 항일련군 여전사들인 박정희(열사), 최순선(열사) 등은 길동성위 비서처 출신들이다.

4. 적지 않은 항일련군 여전사들은 가렬처절한 항일의 싸움터에서 싸우기도 하였다. 항일련군 2군6사 부녀중대가 그러하고, 5군부대의 부녀련대가 그러하다. 그들은 손에 직접 총을 잡고 원수격멸에 나섰다. 2군4사의 여기관총수 허성숙(열사)와 여명사수 리경희(열사), 5군 부녀련대의 여기관총수 주신옥(열사)의 빛나는 발자취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5. 항일련군군과 사,련대의 중국공산당 지도기관과 항일련군 부대들에서는 새로운 지구에로 움직이며 개척할 때마다, 부대의 우수한 장병들 속에서 지하공작원을 뽑아 새 개척지에 파견하군 하였다. 지하공작원들 상당수가 여전사들이었다. 항일련군 2군 6사의 여성중대 중대장 박록금(열사)과 여성중대 김수복(열사), 3군 재봉대 대장 진정산(열사) 등은 그들 여전사들중 가장 우수한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부터 보면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은 항일련군 여러 부대들에서 재봉대원으로, 작식대원으로, 간호원으로, 기관총수로, 명사수로,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였음이 너무도 잘 알려진다. 그네들의 역할을 보면 대부분 작식대와 재봉대, 간호사, 그리고 비서처와 같이 후근분야에 많이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분담역할이 특성상 세심하고 깔끔하고 희생정신이 많은 등으로 직접 총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일대일의 전방보다 후방의 역할담당이 여성들을 더 필요로 하고 또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음, 여성이 지하공작에 종사함은 은폐하기 쉽고 지혜롭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성을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하여 지하공작에 능하게 대처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다음, 직접 총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제일선에서 분투한 항일련군의 여성들은 여장군으로 불리우기 손색이 없다. 무장투쟁의 나날에 남자들과 어깨 곁고 싸운 그들은 여장부임이 틀림없다. 예로부터 화목관과 같은 여성이 있을진대 여성이라고 총대 메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항일련군 녀전사들의 경지를 들여다 보면 전쟁터의 처절한 싸움터에서 여성은 그 시기 남성에 비해 어려운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늘 몽매한 봉건의식에서 정서적으로 많이 억압되어 살던 그들이 혁명대오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신성한 과업을 지니고 자기의 역할 담당이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여성해방이라는 주제도 갈망하였을 것이다.

보충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여성은 모성애라는 특정한 정감으로 후세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욕망이 타자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해방적인 욕망과 모성애와 같은 정감이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변절자 한 명 없었다는 전설 같은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모든 시기, 더구나 특정한 역사 시기에 여성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본문을 마치면서 하고픈 말은, 특정한 역사시기 항일의 대업이란 기치 아래 싸운 중국 동북경내 항일련군의 여전사들, 그네들 피어린 항쟁사는 우리 조선민족(한민족)의 항일무장운동사, 항일독립사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이려니, 항일의 기치아래 선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가리지 말아야 하리. 우리 후세에 죄인이 될 조선민족(한민족)의 반쪽 항일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리.

역사는, 조선민족(한민족) 항일무장역사는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항일련군 여전사들의 거대한 희생, 불멸의 위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

**주해:**

- (1) 흑룡강당사자료 제2집. 중공흑룡강성위당사사업위원회 편, 1985년 8월, 제175쪽
  - (2)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15년 8월 출판, 제3쪽
  - (3)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15년 8월 출판, 제3쪽
  - (4) 김창국 저, 남만인민항일투쟁사. 연변인민출판사, 1986년 5월 출판, 제 17,18,19쪽
  - (5) 흑룡강당사자료 제2집. 중공흑룡강성위당사사업위원회 편, 1985년 8월, 제141쪽
  - (6) 상지시조선민족사. 민족출판사, 2009년 8월 출판, 제72쪽
  - (7) 상지시조선민족사. 민족출판사, 2009년 8월 출판, 제83쪽
  - (8) 동북항일련군사료총서, 동북항일련군 제3군. 흑룡강인민출판사, 1986년 8월 출판, 제102쪽
  - (9) 흑룡강당사자료 제1집, 중공흑룡강성당사사업위원회 편, 1985년 내부발행으로 출판, 제114쪽
  - (10) 흑룡강당사자료 제1집, 중공흑룡강성당사사업위원회 편, 1985년 내부발행으로 출판, 제148쪽
  - (11) 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15년 8월 출판, 제18쪽
  - (12) 高代红, 동북항일련군제5군부녀탄의 항일투쟁. 중공흑룡강성위 당사연구실, 2015년 8월 31일, 인민넷
-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제 Ⅲ

---

---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

---

강영심(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1. 여성독립운동가의 역할 새롭게 보기

2020년 11월 현재 독립유공자 16,282명 중 여성은 488명으로 전체의 2.99%에 불과하다. 실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이나 기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정도가 규모가 작았다기보다는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역사 해석이 남성 중심이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편향된 역사해석을 극복하기 위한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독립운동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과연 여성의 활동과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란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같이 실제 최전선에서 독립군이나 독립운동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남성들과 동반 투쟁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앞장선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남성들과 동일한 규모를 분담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여성에게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임무도 감당해야 했던 것이 당시의 실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주어진 이른바 '사적 영역'의 역할들을 그저 개인의 몫이라고 도외시해 버린다면 독립운동의 진상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독립운동이란 역사적 공간에서 헌신했던 여성들의 활동 중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일들이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일부였으며, 이는 곧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은 오늘의 여성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민족의 일원인 개별가족의 구성원을 양육, 교육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직접적 후원은 물론 독립운동예비군양성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곧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나 평가는 공적인 영역이 주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도 사랑하고 결혼하여 일상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를 사적 영역으로 도외시한 탓에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이루어놓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한 이는 바로 여성들이었다. 독립운동가를 남편이나 가족으로 둔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 유지와 운영은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남성들과 달리 여성독립운동가의 경우 공·사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중첩된 임무를 안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중층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여성독립운동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평가해 보고해 봄으로써 여성독립운동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독립운동의 정의나 범주설정에도 유익할 것이다.

독립운동가 가정을 이끈 여성들은 엄혹한 일제강점기 하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곤경을 극복하고 이들을 지키고, 교육시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드러나지 않은 희생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쉽 없는 항일투쟁과 조국광복의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 아니겠는가

예컨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중 남편이나 아버지를 돕는 내조자 여성 뿐만 아니라 그 내조할

동이 실제 독립운동에 미치는 영향, 또는 역할 수행의 비중, 중요성 등도 평가의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항일여성운동과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과정은 사료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최우선되어야 하는 항일여성운동사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방법이다. 난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독립운동가 남편과 동반자로 독립운동전선에 나선 여성들의 행적과 투쟁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과 독립운동의 관계는 남성들과는 달리 독립운동에 올인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 즉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일상적인 '여성의 역할' 예를 들면 결혼에 따르는 남편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 담당, 자녀양육에 대한 과중한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독립운동과 연계해서 파악해야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남성독립운동가의 등장에 숨은 조력자 역할을 대신 한 여성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 여성들 중에는 어머니, 며느리, 딸, 그리고 부인 등을 들 수 있지만 결혼과 함께 동반자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여성들에 초점을 두어 부부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적은 어떠한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여성들은 강인성 투쟁성과 희생을 요구하는 독립운동, 혁명운동전선에서 단지 보조자(내조자)역할에 머물렀는지 여부도 밝혀보고자 한다.

## 2.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독립운동에서 부부가 함께 헌신한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과 운동계열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서훈받은 부부는 102여명(51쌍)에 달하며 서훈받지 못한 경우를 모두 합하면 대략 70쌍 140명 정도라고 한다. 활동지역도 국내는 물론 중국본토, 만주, 러시아, 일본, 미주 등 한국독립운동이 펼쳐진 곳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계열도 임시정부, 국내항일, 중국방면, 광복군, 일본방면, 미주방면, 3.1운동 만주방면, 독립운동지원 등 다양하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서훈받은 부부 독립운동가 51쌍을 정리한 표를 글 끝 부록에 두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거나 관련이 있는 독립운동가 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부부 독립운동가는 표1과 같이 12쌍 24명(25명)이며<sup>1)</sup> 그 외 임정의 군대인 광복군에서 활동한 부부는 6쌍 12명이 있다.(표2 참조)

1) 조소앙의 경우 부인 최형록과 오영선 모두 서훈을 받았다.(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참조)

물론 부부 중 한사람만이 임정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안창호, 이상정 등이 그러하다. 안창호의 경우 부인 이해련은 주로 미주 방면에서 활동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정의 부인인 권기옥은 주로 중국군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표1 중 몇몇 부부의 경우 남편은 임정의 여러 직책을 담당하며 직접적으로 활동하였지만, 부인은 아무 직책없이 임정지원 단체활동이나 운동지원에 상당하는 부분도 임시정부 활동으로 포함시켰다.

표1.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sup>2)</sup>

이름	생몰연도	출신	훈격(연도)	이름	생몰연도	출신	훈격(연도)
김순애	1889~1976	장연	독립장(77)	김규식	1881~1950	서울	대한민국장(89)
김원경	1898~1981	서울	대통령표창(63)	최창식	1892~1957	서울	독립장(83)
김효숙	1915~2003	용강	애국장(90)	송면수	1910~1950	회양	애국장(92)
노영재	1895~1991	용강	애국장(90)	김봉준	1888~미상	용강	대통령장(89)
두군해	1904~1981	중국	애족장(16)	김성숙	1898~1969	철산	독립장(82)
안혜순	1903~2006	의주	건국포장(19)	문일민	1894~1968	강서	독립장(62)
연미당	1908~1981	여주	애국장(90)	엄항섭	1898~1962	여주	독립장(89)
오건해	1894~1963	충북	애족장(17)	신건식	1889~1963	청원	독립장(77)
이숙진	1900~미상	중국	애족장(17)	조성환	1875~1948	서울	대통령장(62)
정정화	1900~1991	충남	애족장(90)	김의한	1900~미상	서울	독립장(90)
최선화	1911~2003	인천	애국장(91)	양우조	1897~1964	강서	독립장(63)
최형록	1895~1968	평양	애족장(96)	조소양	1887~1958	양주	대한민국장(89)
오영선	1887~1961	양주	애족장(16)	조소양	1887~1958	양주	대한민국장(89)

표2. 임시정부 광복군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이름	생몰연도	출신	훈격(연도)	이름	생몰연도	출신	훈격(연도)
김마리아	1903~	서울	애국장(90)	이범석	1900~1972	서울	대통령장(63)
오광심	1910~1976	선천	독립장(77)	김학규	1900~1967	평원	독립장(62)
조순옥	1923~1973	연천	애국장(90)	안춘생	1912~2011	황해	독립장(63)
민영주	1923~생존	중국	애국장(90)	김준엽	1920~2011	강계	애국장(90)
신순호	1922~2009	청원	애국장(90)	박영준	1915~2000	파주	독립장(77)
전월선	1923~2009	상주	애족장(90)	김근수	1912~1992	진양	애족장(90)

이처럼 임정에서 활동한 부부 독립운동가의 경우 남편들은 임정 설립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 임정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였다. 이에 반해 부인들은 임정 초기에는 주로 임정의 외곽단체에서 활동하였으나 1930년대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임정 내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40년대 충청 임정 시기 그 참여도가 높아졌고,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광복군에 입대하여 독립군의 일원이 된 여성운동가들도 생겨났다.

2) 표1과 표2는 보존처 공헌전자자료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인물들의 개략적인 활동은 부록표참조

1919년 초 3.1운동 전후 상해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으로 김순애(金淳愛)와 김원경(金元慶)을 들 수 있다. 김순애는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고모다. 정선여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오빠 김필순의 활동을 돕다가 1919년 1월 김규식과 결혼하였다. 이후 남편 김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당원이 되었고, 비밀작전을 수행기 위해 1919년 2월 국내에서 중요민족지도자를 만나고 상해로 돌아왔다. 김순애는 1919년 6월 이화숙(李華淑)·과 함께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와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sup>3)</sup>

특히 부인회 회장 김순애의 명의로 국내의 애국부인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이다. 여성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자득하며 결사조직을 한 것이다.’라 밝혀 여성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여성들이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대한애국부인회의 출범은 해외 각지의 애국부인회결성으로 이어져 해외 여성역량의 결집이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김순애는 서울에서 부인회대표로 상해로 파견된 김원경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김원경은 서울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19년 3.1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다. 1919년 4월 국내에서 대한청년외교단의 도움으로 최숙자(崔淑子), 김희열 등과 함께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를 결성하였다. 5월에는 부인회의 대표로 건의문과 독립운동자금을 휴대하고 상해에 파견되었으며 이후 상해에서 활동하였다.<sup>4)</sup> 두 사람은 1919년 7월 대한적십자회의 회원, 1919년 9월 5일 임시의정원 국무원 참사로 임명되면서 함께 활동하였다.<sup>5)</sup> 그 뒤 결성된 상해애국부인회도 함께 이끌었다.

그 외에 1921년 7월 상해로 망명한 김순애의 조카 김마리아가 1922년 2월 18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sup>6)</sup> 1923년 1월 31일 국민대표회에서 개막연설을 한 것 등이 주목되는 여성들의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임시정부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면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밖에 1920년 1월-3월사이 개설된 대한적십자회의 간호사 양성소1기교육을 이수한 이화숙, 김연실, 이경신, 오남희, 이봉순, 강현석, 이매리 등도 이시기 상해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sup>7)</sup>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본격적인 여성들의 활동은 1930년대 중반 창당된 독립운동정당활동에 참여하면서 두드러졌다. 가장 먼저 조소양의 동생 조용제가 1935년 9월 한국독립당 재건작업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후 1940년 3월부터 민족주의계의 통합운동으로 출범한 새로운 한국독립당의 창립과정에 이순승, 조용제 등이 창립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여성들의 입당이 이어져 방순희, 정정화 최선화, 최향록, 조계림, 민영주, 연미당, 이국영, 오희영 등이 당원으로 참여하였다.<sup>8)</sup>

또한 1930년대 말부터 임시의정원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방순희는 1939년

3) 『신한민보』 1919.8.1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0권 대중투쟁사, 1978, 882-883쪽.

4) 『고등경찰요사』 192 : 『매일신보』 1919.12.19. , 『독립신문』 1920.1.1.

5)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1919.9.5.

6) 『독립신문』 1920.2.20.

7) 『독립신문』 1920.2.7.

8)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역사와 경계』 68, 2008, 242-243쪽.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에서 새로 선출된 18인을 포함하여 유일한 여성으로 1945년까지 의원직을 수행하였다. 1941년 10월 이후 김효숙, 지경희, 신정원, 안봉순 등이 각지역의 의원을 역임하였다. 특히 총칭의 임시정부 내에서 민영주, 안봉순, 민영숙 등은 내무부, 법무부, 비서처, 외무부, 회계검사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외 조계림, 최형록, 지복영, 신순호 등이 외무부에서 근무하였다. 그 밖에 선전부, 교통부, 생계부, 문화부 등에서도 방순희, 김정숙, 이국영, 장희수 등이 각각 근무하였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출범하는 한국광복군에 입대한 여성대원들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성립전례식에 당당히 참석하였다. 군복을 입은 오광심, 김정숙, 지복영, 조순옥 등과 사복을 입은 신순호, 민영주 등이 참가하여 여성들을 대표하였다.<sup>9)</sup> 이후 여성대원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 3. 김순애 · 김규식부부

이제 임정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부부독립운동가 4쌍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와 행적을 살펴 보자. 김순애 김규식 부부는 1919년 3.1운동 전후 상해지역에서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독립운동가 중 하나였다. 김순애는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출신으로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에서 자랐다. 고향에 세워진 신식학교인 소래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으며, 집안의 신실한 기독교신앙과 확고한 민족의식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면모는 김순애의 집안이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은 김필순, 김순애, 김마리아, 형부 서병호, 남편 김규식, 조카 서재현 등을 배출한 사실로도 확인된다.<sup>10)</sup> 김순애는 1912년 6월 중국으로 망명한 후 오빠 김필순의 일을 도우며 1915년 9월 남경(南京)의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1919년 1월 오빠의 막역한 동지인 김규식과 부부의 연을 맺고서 신한청년당의 임무를 수행키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김순애와 김규식은 결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오빠의 동지가 된 김규식은 미국 유학 이후 신문안교회의 언더우드 목사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필순의 가족과 소래에서 기독교로 맺어진 서경석(서병호의 부친) 집안과의 인연은 서울의 새문안교회로 이어졌다. 여기서 오빠친구였던 김규식과는 자연스럽게 알고지낸 것으로 추측된다. 1907년경 김규식이 김순애에게 청혼하였지만 학업을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무산된 일이 있었다. 김순애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생관과 달리 여성이지만 학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고한 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김규식(金奎植)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1897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03년까지 미국의 로아노크대, 프린스턴대학에서 수학하여 국제적 활동이 가능한 인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고려하여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등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로 김규식을 선택한 것이다.<sup>11)</sup>

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64-68쪽  
 10) 강영심,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12 참조  
 11)&#61440;『독립신문』 1919. 8. 26.

결혼 이후 부부는 함께 한 경우보다 서로 별개의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가 더 많다. 이시기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부생활의 양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활동 공간이 해외의 독립운동 현장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순애가 후일 기억하기를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신한 결혼식 이후 2주일 후 남편이 선편으로 프랑스로 갈 때까지 단 한번 합방조차 못했다며, 프랑스 떠나는 일의 계획과 준비로 분주, 순애는 김규식의 옷을 바느질하며 매일 밤을 새웠다. 고 한다.

즉, 김순애가 주부로서 남편의 출장기간에 필요한 여러 준비로 분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이 여성의 역할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김규식은 파리에서의 활동이 이어져 1921년 귀국할 때까지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임시정부의 대표로 외교운동에 전념한다. 반면에 김순애는 김규식과 함께 여운형(呂運亨)·서병호(徐丙浩)·김철(金澈)·조소앙(趙素昂)·조동호(趙東祐) 등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에 가입하고 이사(理事)로 활동하였다. 1919년 2월말 경부터 신한청년당의 당원들과 서울에서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느라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해로 돌아왔다. 이후 김순애는 남편 김규식과 동지로 1945년 해방까지 중국지역의 독립운동전선에서 임정을 적극 지원하는 투사로 헌신하였다. 이제 김순애의 활동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김순애는 앞서 3.1운동과 연관된 신한청년당활동이 공식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다. 앞서 살핀대로 상해로 돌아온 후 김순애는 1919년 6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고 상해지역여성운동의 물꼬를 텃다.<sup>12)</sup> 1919년 7월 출범한 대한적십자회의 사검(查檢), 이사로 활동하며, 1920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 운영에 앞장섰다. 민족교육기관인 인성학교 지원 및 상해 대한인거류민단의원 등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장해갔다. 1919년 9월 5일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로 임명되어 임정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이다. 그 외에 김순애는 유창한 중국어로 상해의 중국학교를 돌면서 한중문제에 대해 강연하며 한국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려 힘썼다.<sup>13)</sup>

김순애는 1920년 1월 상해에서 ‘임정의 뜻에 따라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독립전쟁의 독립군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용단을 발기하는데 동참하였다.

또한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120여개의 단체가 참가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김순애도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여해 최고 통할 지도기관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무산된 이후 어려워진 임정을 돕고자 1926년 7월 안창호, 엄항섭(嚴恒燮) 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경제후원회의 창립에 동참하였다. 1930년 8월 16일 상해에서 김두봉의 부인 조봉원(趙鳳元)과 오의순 등과 한인여자청년동맹을 결성, 집행위원이 되어 한국독립당과 임정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32년 4월 발발한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의거로 상해를 떠난 임정은 1940년 9월 중경에 안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1941년 임시정부는 주의(主義)와 이념(理念)을 떠나 통일전선운동을 추진하여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중국 관내의 좌익세력들과 연합함으로써 좌우합작·연합정부의 실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 김규식도 1942년경부터 임시정부에 다시 참여하여 선전부장, 부주석을 맡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운동계도 재결집에 나서게 하였다. 1943년 2월 23일 김순애는 중경의 각계 각

12) 『독립신문』 1920.2.17. 「부인과 독립운동」  
 13) 『독립신문』 1920.4.20.



파 부인 50여명과 한국애국부인회 조직을 재출범시켜, 주석으로써 한국애국부인회재건선언과 7개항의 강령을 발표하였다.<sup>14)</sup> 강령에서 제시한 여성독립운동의 핵심은 “국내외의 부녀는 총단결하여 전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하되 남녀간에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부녀단결을 공고히 하여 전세계 여성과 전인류의 영원한 화평 행복을 위한 공동 분투를 하자.”였다. 이 단체를 통해 해외각지의 한국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임정지원을 확대하는데도 일조하였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상생활과 독립운동가 특히 남편을 곁에서 돕는 활동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독립운동이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이 역시 독립운동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김순애 역시 독립운동에 집중해야 할 김규식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우선으로 감당하였다. 셋째아들 김진세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8살 때 아버지가 항상 집에 계셨지만 여전히 바쁘시고 늘 책을 읽거나 생각하시던 모습...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독립 먼저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어려운 생계를 겨우 꾸려가셨지요.”였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남편은 상해 푸단대 영어과 교수, 순애는 상해의 한국유학생 하숙집운영 생계도움’, ‘남편은 중국 텐진 백양대 교수, 순애는 조선인 학생 하숙처서 생계도움’, ‘수입이 적어 재봉과 바느질로 와이셔츠 만들어 독일 조계의 옷가게로 넘김’, 이런 자료를 보면 김순애는 생계를 위해 하숙을 치거나 바느질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역할이었다. 비록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지만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럽다. 김순애는 우선 김규식의 전부인 소생인 김진동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후 김규식과의 사이에 1923년 큰딸, 1924년 둘째딸, 1925년 세째딸, 39살인 1928년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즉 1923년부터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며 육아와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1927년의 둘째 딸의 사망과 1930년의 큰딸사망으로 자녀의 죽음도 감당해야 했다. 아마도 이런 시간들로 인해 김순애의 외부활동이 1923년 4월부터 1926년 7월사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김진동과 오빠 김필순의 아들 김엽까지 돌봐야 했다.

독립운동가의 삶은 상황에 따라 자주 이동해야만 하고 일제의 감시를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생활이었다. 김순애의 아들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혹시라도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사를 자주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3년 이상 머문 기억이 없다고 기억하면서 일본 순사가 늘 주변을 수소문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고 전하였다.

김순애는 이처럼 남편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의 역할을 덜어주었다. 부인의 헌신적 뒷바라지에 힘입은 김규식은 1919년 이후 1945년까지 독립운동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19년 신한청년당대표로 파리 강화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 주재위원, 워싱턴DC 도착.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 통합임정 학무총장, 1921년 상해 학무총장사임 후 남화학원설립, 1922년-27년 국민대표회의 개최시 창조파의 일원으로 활동 및 임정과 결별,

14) 『新韓民報』 1943.6.3.

1927년 난징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 회장, 1927년-29년 북양대교수제직중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총성회의 집행위원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1930년과 1933년 임정의 국무위원 학무장, 1935년 민족혁명당 창당참여 및.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활동, 1942년 임시의정원 의원선출, 1943년 임정 선전부장, 1944년 임정 부주석으로 이어졌다. 김규식은 특히 1942년 이후 임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김순애도 1943년 2월 재건한국애국부인회를 이끌며 해방까지 여성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김순애 부부는 1919년 신한청년당의 당원이 되어 함께 파리강화회담 한국대표가 되어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김순애는 당원들과 국내에 잠입하여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파견과 지원만세운동을 추진하는 활동을 실행에 옮겼다. 이후 각자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실행하였다. 임정수립 이후에는 부부는 임정 혹은 임정의파단체를 통해 임정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임정과외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1945년 해방까지 임정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부부 독립운동가였다. 광복 후 김순애·김규식 부부는 1945년 11월 23일 임정요원 1차 환국 때 귀국하였다. 김순애는 이듬해 모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48년부터 1962년까지 평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성교육기관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김규식은 광복이후 여운형과 좌우합작운동에 앞장섰으며 1948년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나섰다. 1950년 6.25전쟁 때 북한군에 납치되었다가 12월 10일 만포진 부근에서 별세하였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김순애는 남은 자녀와 살다가 1976년 5월 17일 별세하였으며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김규식은 1989년에서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 4. 김원경 · 최창식 부부

김원경과 최창식은 각각 1919년 5월과 3월 상해로 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원경은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서울에서 직접 결성을 주도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그해 5월 건의문과 독립운동자금을 휴대하고 상해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해 11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조직이 발각되어 동지들은 모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체포를 면한 김원경 역시 중심인물로 간주되어 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궤석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sup>15)</sup>

상해에 파견되어 임무를 완수한 김원경은 9월경 상해에서 애국부인회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9월 김순애, 이화숙 등과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로 임명되었다. 1919년 7월 창립된 대한적십자회의 회원으로 1920년 1-3월 개설한 간호사 양성소 제1기로 훈련받았다. 1920년 9월 30일 상해조선인거류민단(上海朝鮮人居留民團) 개선 시 최창식과 함께 서구의원(西區議員)으로 선출되었다. 아마 이시기 무렵 최창식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추측된다. 최창식은 1911년 서울에서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한 군자금 모집에 관여하였고 1912년부터는 오성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

15)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0.6.29.)

취시켰다. 오성학교 교사로 활동 중 1916년 보안법위반으로 피체되어 8월 징역형의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출옥 후 1918년 중국으로 망명해 1919년 3월 말 독립임시사무소에 참여하고 신한청년당 여운형, 선우혁, 현순 등과 임정 설립에 동참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회의 개최 초대 경기도선출의원, 5월 대한민국 거류민단(여운형단장) 의사원, 7월 상임위원회 내무위원장, 국제연맹제출안 작성특별위원회 위원, 원법(院法)제정위원 등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8월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하면서 임정 초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남편 최창식이 임시의정원을 비롯한 주요직에서 활동하면서 김원경도 1921년 4월 인성학교 교사활동과 상해애국부인회의 활동이 1921년경에는 확인된다. 김원경은 임정과는 무관하게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최창식과 동반 참가하였다. 최창식은 신한청년당대표로, 김원경은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최창식이 1920년 5월 상해 한인공산당(이르쿠츠크파)에 입당하고 상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청년단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창식은 1921년 6월부터는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의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최창식의 사회주의 수용은 김원경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쳐 공산당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원이 된 두 사람이 함께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피압박민족대회 참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창식은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서 김규식·여운형과 함께 조선대표로 연설도 하였다.

그런데 김원경은 1922년 극동피압박민족대회 참석 이후 1930년 8월 한인여자청년동맹의 참여 이외에는 다른 활동이 없다. 이러한 공백은 김원경의 두 번에 걸친 출산과 1930년 최창식의 수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여지가 있다.

반면에 최창식은 대회 이후에는 1922년 중한호조사의 편집과 간사로서 중국 사회주의자와 한인 사회주의자의 연대에도 힘을 기울였다. 최창식은 반이동회파를 결성하고, 고려공산청년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도 임정 안에서도 일부 직책을 맡아 사회주의자로서 임정과 연결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최창식은 1922년 7월에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진력하였다. 또한 1924년 5월에는 제10대 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1926년까지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였다. 1925년에는 「신민보(新民報)」를 발행하고, 3 1공학(三一公學)을 설립 등을 통해 민족계몽에도 노력하였다. 1927년 4월 한국노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임정과 연관된 활동을 이어갔다.

최창식은 1927년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통합운동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28년 코민테른이 12월테제를 발표해 민족주의와의 결별을 정책화하자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추진이 좌절되었다. 최창식은 상해축성회해체 이후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했으나 삼일인쇄소(三一印刷所)를 인수하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세력 모두의 인쇄물간행을 맡음으로써 민족통일전선의 끈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1930년 4월 사회주의선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일본영사관경찰에 피체되어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후 상해로 가족을 찾아갔지만 이후 활동은 없었다.

김원경의 사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1924년에 최영방을, 1926년에 최영화를 출산하고 양육하였다. 그리고 최창식이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돌아온 후인 1937년 아들 최영만을 출산하여 모두 세 명의

자녀를 낳았다. 김원경의 결혼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1924년부터 1926년까지 두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였으며 최창식을 대신하여 가정을 이끌었던 것이다. 둘째가 3-4세가 되는 1930년이 되어서야 다시 활동이 가능해져 8월 한인여자청년동맹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셋째 최영만은 최창식이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돌아온 뒤에 출산하였다. 최창식은 1933년 8월에 출옥하였지만 옥중에서 얻은 각기병 악화로 거동이 어려워져 안국동의 여관에 한동안 머물다 가족을 찾아 상해로 돌아갔다.<sup>16)</sup> 그때는 이미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 유랑시대에 처한 시기였지만 김원경 최창식 부부는 임정에 합류하지 않고 상해에 머물렀던 것이다. 최창식이 옥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독립운동은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 김원경이 생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41년 『光化』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병든 남편을 봉양한다’는 기사에서도 입증된다. 그런데 김원경이 1940년 상해 거류 조선인회(朝鮮人會)와 조선총독부 상해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상해 일본대사관 중지(中支)경무부의 후원을 받은 「재상해조선부인시찰단」으로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상해 재류 한국인으로 ‘유력 지도계급’에 속하는 부인들 중 오랫동안 조선과 일본 실정을 시찰한 일이 없는 이들을 선발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시찰케 함으로써 상해 일반 재류 한국인들에게 ‘총독통치’의 선도 및 교화를 철저히 하려는 장치였다. 당시 잡지사와의 대담에서 김원경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런 선택에 아쉬움이 남는다.<sup>17)</sup>

김원경은 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고 1981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최창식은 1983년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 5. 최선화 · 양우조 부부

앞의 두 부부가 임정 설립 초기부터 활동한 것에 비해 임정 말기에 활동한 부부로 최선화 양우조 부부가 있다. 최선화(崔善嬾)는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1936년 상해로 가서 간호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홍사단에 가입하였다. 1937년 5월 양우조(楊宇朝)와 결혼하였으며 1940년에 창립된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천성 기강으로 이전한 뒤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의 결성에 참여하여,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2월 김순애를 중심으로 충청의 각계 각파 부인 50여 명과 한국애국부인회 재건에 동참하고 서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를 도와 각 방면에서 활동하였는데,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 여성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고, 위문품을 거두어 항일전선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들의 계몽과 교육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최선화는 1941년 10월 중경생활 당시 독립운동가 부인들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이곳에서 부인들이 하는 일은 아이키우고 임정에서 활동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이다. 하지만

16) 「崔昌植氏 七日に 出監」, 『朝鮮日報』 1933.8.8.

17) 「上海朝鮮婦人團 故國山河 訪問記」, 『삼천리』 제12권 제6호 1940.6.1.

그 외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자녀들에게 민족의 정신을 집어넣는 것도 우리 몫일 것이요, 후방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일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며 애쓰는 우리 동지들을 보살피는 것도 여자들의 몫일 것이다.”<sup>18)</sup>

예컨대 육아와 독립운동가 남편의 ‘뒷바라지’가 주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자녀에게 민족정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후방에서 독립운동지원, 일본군과 전투하는 독립군 ‘보살핌’ 등도 여성들의 역할로 파악하고 있다. 그 외에 원로독립운동가를 돌보는 일도 맡았다. 최선화의 경우 이동녕을 주로 ‘모셨다’,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혼자 생활하던 원로들을 돌보는 일 역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몫이었다

최선화도 역시 공적으로는 한국독립당, 한국혁명여성동맹, 재건한국애국부인회의 구성원으로 독립운동전선에서 활동하였지만, 사적으로는 한 가정을 이끌며 남편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1938년과 1941년의 두차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부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물론 최선화 양우조 부부의 경우 육아분담과 간호 등의 역할을 남편이 함께 담당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비교적 젊은 층인 부부는 근대식 교육을 받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도 다른 부부와는 달랐던 면모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은 당시 곤경에 처한 임시정부의 식구들과 더불어 극한 상황을 겪은 최선화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양우조의 심경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나와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본토에서 교편을 잡고 있거나 미국 유학생으로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을 것이거늘 이곳 중국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과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양우조는 19세에 도미하여 방직전문학교와 뉴베드퍼드공대 폴리머공대를 졸업하고 조국에 방직산업을 일으키려는 꿈을 꾸고 귀국하였다가 여의치 못하여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미국에서의 오랜 유학생생활을 통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거나 서구적인 결혼관과 육아법을 수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양우조는 1929년 한국독립당 창당 발기인, 화남 및 남양군도 시찰 특파원, 중국방직공업 관리위원, 혁신사 주필이자 한민보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국민당, 독립당, 조선혁명당의 3당통일회의 관여, 임정 재무부·생계부 차장, 광복군 참사 및 정훈처장 등을 역임하며 임정에서 활동하였다. 양우조는 1930년대 이래 줄곧 정당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데 힘썼다. 임시정부는 1930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1935년 이후에는 한국국민당을 기반으로 유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1940년 중경에서 또 다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임시정부의 기초세력이자 여당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양우조는 임시정부의 세력기반인 (상해)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중경)한국독립당에 참여하여 간부로서 활동함으로써 광복의 날까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해방이후 최선화 양우조 부부는 1946년 4월 임정 인사 및 그 가족들과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한국 이후 최선화는 외부 활동은 없었지만, 양우조는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 인사들과 함께 정치·정당 활동을 하였다.

양우조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남편을 먼저 보낸 최선화는 1991년에 비로소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2003년 별세하였다.

18) 양우조 최선화 『濼始의 일기-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육아일기』,우리나비, 2019, 174쪽.

상술한 바 3쌍의 부부 독립운동가를 살펴보았지만 남성의 경우 가정이나 육아에 신경 쓰이지 않고 온전히 독립운동 전선에 투신해 ‘항일투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함께 독립운동 전선에 나섰지만 결혼과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출산과 육아의 책임도 본인의 몫으로 당연시하였다. 아울러 남편의 독립운동 ‘뒷바라지’ 까지도 당연히 감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에는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활동상의 공백기가 생겼다. 또한 ‘원로독립운동가 돌보기’도 여성들의 할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위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공적 사적으로 나누었지만, 사적 영역으로 구분했던 ‘남편 뒷바라지’, 임신,출산과 육아, 그리고 독립운동가 돌보기, 독립군 돌보기 등은 독립운동 후원 및 독립운동에비근 양성적 성격을 띠므로 이 역시 개인의 일상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연장으로 확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 6. 광복군 동지 오광심·김학규 부부

광복군 여성대원 중 남편과 함께 광복군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중 대표적인 예가 오광심 김학규 부부다.

오광심(吳光心)은 1910년 3월 15일 평북 선천군(宣川郡)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남만주로 이주한 후 1927-8년경에 흥경현(興京縣)의 화흥중학(化興中學) 부설 사범과에 입학하여 민족교육을 받았다. 1929년 20세에 졸업하고 1930년 통화현 반남배(半拉背)의 배달학교교사가 되었다. 1931년에는 삼원포의 동명중학(東明中學) 부설 여자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2세 여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1930년 국민부가 결성한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였으며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교사를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조선혁명당 산하 조선혁명군에 가담하여 사령부 군수처, 유격대 및 한·중연합항일전에 가담하여 지하연락 활동을 맡았다.

지하연락 활동 중 조선혁명군 참모장 김학규(金學奎 호는 백파)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의 동지가 되었다. 1900년 평남 평원군 출신인 김학규는 1919년 ‘신홍사관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한국 의용대’의 소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가을 일제의 소위 ‘경신토벌’ 이후 신민현(新民縣)의 문회고급학교에서 6년 동안 수학하였다.<sup>19)</sup>

1927년 졸업하고 동명중학교 교원 및 교장을 역임하다가 1929년 사직하였다. 김학규는 국민부에 가담,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임되었고,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의 참모장으로 활동할 때에 오광심을 만나 결혼한 것이다. 그는 조선혁명군 참모장으로 만주의 당취오군과 대일작전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연합군을 조직하여 1932년 10월 중순까지 한중연합군은 일군과 200여 차례에 걸쳐 교전하였으며, 영릉가 전투 등에서 큰 전과를 올린 바 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가 만주국을 설립하고 만주일대를 장악한 이후 1933년 말 만주에서 악전고투하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등 독립군은 관내지역으로 이동

19) 김학규, 『백파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581-613, 1988

하거나 임시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조선혁명군 사령부도 임정의 원조를 요청하고자 김학규를 남경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오광심도 동행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에서 ‘님 찾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비장한 심경의 일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934년 5월 오광심과 김학규부부는 농부로 변장하여 무사히 남경에 도착하였다. 김학규는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혁명군의 대일작전의 상황보고를 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한 인력과 물력보급의 필요성과 그 긴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당시 각 단체의 대표들은 대동단결을 위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을 결성하고 통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학규는 이같은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오광심에게 만주 본부 사령부에 전달하도록 파견하였다. 오광심은 중요한 기밀보고서를 휴대하지 않고 통째로 외운 다음 1934년 7월 15일 남경에서 출발하였다. 김학규는 자서전에서 이 기밀보고서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서의 암송전달을 택한 것이다. 그는 ‘청년기인 오광심이 어려도 비교적 총명하고 기억력이 특별히 강했으므로’ ‘아내’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오광심이 ‘군말 없이 쾌락하였다.’ 마치 ‘소학생이 교과서를 리피트하듯이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암송하였다’고 술회하였다. 4.5일만에 책한 권을 숫자 한자 틀림없이 숙송(熟誦)하고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특히 오광심은 만주에서 여자투사로서 조선혁명당 진영의 동지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었으므로 그가 전하는 ‘리피트보고서’는 문서보고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예상한 것이다.

1935년 1월 오광심은 조선혁명당 본부에서 작성해 준 비준서를 소지하고 무사히 김학규에게 전달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마침내 1935년 7월 5일 한국독립당·의열단·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독립당 등 5당이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이 출범하였다. 김학규는 중앙집행위원과 만주지부장으로 임명되어 대동단결에 힘을 기울였고, 오광심은 부녀부 차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민족혁명당 내의 계파갈등으로 오광심의 부녀부에서의 활동 역시 지속할 수 없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오광심 부부도 이동하는 임시정부와 함께 한구, 장사, 광주를 거쳐 유주에 정착하였다. 오광심은 1939년 2월 유주에서 조직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의 대원이 되었는데, 34명의 대원 중 여성은 11명이었다.

중경에 안착한 임시정부는 조직을 재정비하며 광복군의 설치 계획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고 오광심, 김학규 모두 광복군이 되었다. 오광심은 총사령부의 사무 및 선전사업 분야에 김학규는 제2지대 지대장과 참모직을 겸하였다. 1941년 7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제1지대로 편입되자 제3지대장이 되어 최전선인 부양으로 갔다. 총사령부가 11월 전방인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으로 이동하였을 때 오광심은 남편 그리고 지복영(지복영:조순옥 등 여성대원과 함께 이동하였다. 부부는 서안과 부양에서 1945년 해방 때까지 광복군동지로 활동하였다.

서안 총사령부의 선전조는 적극적인 광복군 홍보와 선전 활동을 위해 기관지 간행을 준비하였다. 편집은 김광이 담당하였고, 원고 작성과 편집은 오광심을 비롯하여 지복영(지복영:조순옥 등 여자 대원이 주로 담당하였다. 1941년 2월 1일 자로 기관지 『광복(光復)』을 창간하여 현지 중국인들과 국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전활동에 나섰다. 창간호 한국어판에는 국내외 동포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글들을 실었다.

오광심도 「한국 여성동지들에게 일언(一言)을 들림」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한국여성의 존재를 20억 세계인 가운데 절반이 되는 10억 세계 여성 인구의 구성으로 보고 “우리 여자가 없으면 세계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국여성의 존귀한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세계 흥망과 민족 존망의 책임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반아(스페인) 여성이나 중국여성들이 맹렬하게 투쟁한 실제적인 사례를 밝혔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볼 때에 ‘국망’ 30년 동안 조국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국내와 만주 및 관내에서 맹렬한 활동을 한 것은 주로 남자 동지들이고 여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니 참으로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제 남녀평등과 여권을 찾으려면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국가와 사회의 임무를 져야만 하며, 바로 지금 여자들에게 그 기회가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1942년부터는 제3지대장 김학규가 초모공작을 위해 최전선인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 정착하여 한국광복군 초모위원회(招募委員會)를 설치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오광심은 제3지대장 김학규의 참모이자 기밀 담당 비서로서 활동하였다. 오광심 김학규부부는 본부요원과 신입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적 점령지역에서 초모공작을 전개하는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광복군에 참여하였던 대원들의 회고에 의하면, 광복군에 투신하였던 대원들은 선생의 자상한 보살핌과 배려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광복 후 오광심은 김학규와 함께 귀국을 위해 상해로 이동하였다. 김학규는 광복군 총사령부 주호관 사처(駐#28396:辦事處)의 판사처 처장을 지낸 뒤 1946년 가을 오광심과 함께 만주 심양(沈陽)으로 이동하였다가 1948년 4월에야 귀국하였다. 김학규는 귀국 이후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다가 1949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1960년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여 최고대표위원에 취임하며 정치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오광심 부부는 그 활동양상이 다른 부부들과 달랐다. 즉 부부가 광복군 3지대란 동일한 영역에서 대부분 동일한 업무나 관련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것이다. 특히 오광심은 군사조직 내의 군인이란 역할 탓인지 여성의 일상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록이나 자취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혼 생활 중 가사돌봄,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적었던 것으로 보아 남편과 비슷하게 공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앞에 살펴본 3명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것과 달리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들 부부는 무슨 연유인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간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광복 이후 김학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고 1967년 9월에 별세하였다. 오광심은 1976년에 별세하였으며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국립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3묘역 부부 광복군으로 합장되어 있다.

## 7. 부부독립운동가 활동의 특성과 그 역사적 의의

지금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그 생애와 행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 글을 대신한다.

이 글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전통적 남존여비적인 여건 속에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선각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를테면 김순애는 정신여학교, 남경의 명덕여학교에서, 김원경은 경성여고보에서 최선화는 이화여전에서 오광심은 화홍중학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후 받은 혜택을 개인의 성공에 가두지 않고, 배운 것을 독립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되갚는 역할에 앞장섰던 것이다.

둘째로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이들 남편으로 택하여 함께 동지가 되었으며, 그들이 최전선에서 가정에 대한 염려없이 온전히 독립운동에 매진하도록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이라 당연시한 여성들이었다. 더하여 독립운동의 예비군이 될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냈다는 점, 역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려야 할 사실이다.

세째, 이러한 부부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현재를 사는 여성들에게 자긍심과 민족의식을 심어주며 나아가 청소년의 젠더의식을 각성시켜 주는 의의가 있다.

넷째, 항일독립운동영역에서 남녀의 균형잡힌 시각과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의의다. 이점과 연결지어 여성들의 활동 중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경영 등의 역할이 결코 사적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됨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즉 이 활동 역시 독립운동의 범위로 포함시켜 여성들에게 상당한 평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점은 앞에서 언급된 2020년 11월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이 488명으로 2.9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당시의 제반 환경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활동을 남성과 같은 잣대로 평가·판단하는 입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독립운동전선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활동에 참가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남성들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한 것이 바로 여성들의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고유한 '살림살이, 출산, 육아'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버릴 수 없는 문제이며, 당연히 민족독립운동이란 공적영역으로 그 외연을 넓혀서 해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뒷받침과 독립예비군의 양성이 없이는 독립운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임시정부가 1932년 상해를 떠나 중경에 안착한 유랑시대의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해야 하며, 새로 세워진 틀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서훈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사적인 영역'에서 민족의 일원인 개별가족의 구성원을 양육, 교육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직접적 후원은 물론 독립운동예비군양성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아울러 그에 걸맞는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獨立新聞』 1919. 12. 27, 1920.1.1. ; 『신한민보』 1919. 11. 27, 1943.6.3.  
 『매일신보』1919.12.19.; 『경향신문』 1960.10.4,1967.9.22.  
 『삼천리』 제12권 제6호 1940.6.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20. 6. 2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의열투쟁사자료집』 제11집, 1976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권 임정편Ⅲ』  
 양우조·최선화 『濟始의 일기-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육아일기』, 우리나라비, 2019,  
 박규원, 『상하이 올드데이스』, 민음사, 2003,  
 김학규, 『백파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독립기념관, 『자료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2016.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역사와경계』, 68, 2008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강영심·김도훈·정혜경,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I -중국·미주·일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광재, 『한국광복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강영심,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12  
 박용옥, 『한국여자광복군 오광심의 활동과 지도력』, 『한국여성독립운동가』 :  
 (사) 3·1 여성동지회 50주년 기념, 국학자료원 2018, 300-322쪽.  
 이한나, 『崔昌植의在中獨立運動과 민족통일전선추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2016

(부록 1) 서훈받은 부부독립운동가 (51쌍, 여성 가나다순)

이름	생몰연도	출신지	활동계열	훈격	주요활동
강원신	1887~1977	평남	미주방면	애족장(95)	신한부인회 회장, 대한국민회 후원, 임시정부 후원
강영승	1888~1987	평양	미주방면	애국장(16)	대한민국민회 상원지방회원, 샌프란시스코지방회 대의원
강주룡	1901~1932	함북 강계	국내항일	애족장(07)	평양적색노조운동, 고무공장파업주도 올밀대투쟁
최전빈	1906~1923		만주방면	애족장(95)	1921년 만주의용군활동
강혜원	1885~1982	평양	미주방면	애국장(95)	신한부인회조직, 한인부인회와 합동, 임정 군자금 지원
김성국	1901~1932	의주	만주방면	애국장(94)	통의부 제6중대 제3소대장, 정의부 군자금모집, 림의용군
권기욱	1903~1988	평양	중국방면	독립장(77)	동부항공사령부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 항일연구교도, 임정직할부인회
이상정	1896~1947	대구	임시정부	독립장(77)	서북국민부대참모, 국민군 정규군 소장, 임정외교연구위원, 광복군 총사령부
김도연	1894~1987	김화	미주방면	건국포장(16)	대한인여자애국단 맥스웰지부, 맨티카 국어학교 임원, 독립운동자금지원
윤응호	1881~1979	안주	미주방면	건국포장(15)	대동교육회 대동보국회 대한민국민회 새 월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 간사
김락	1863~1929	안동	3.1운동	애족장(01)	3.1독립만세운동지원
이중엽	1863~1921	안동	국내항일	애족장(90)	파리장서 서명운동, 청원서
김마리아	1903~	서울	광복군	애국장	광복군교관
이범석	1900~1972	서울	광복군	대통령장(63)	북로군정서,서로군정서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투, 고려혁명군, 광복군
김병인	1915~2012	용강	중국방면	애족장(17)	한국혁명여성동맹창립에 참여 및 당원활동
이준식	1900~1966	평남 순천	광복군	독립장(62)	한국광복군 참모, 광복군 제1지대장
김수현	1898~1985	서울	중국방면	애족장(17)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 당원
이광	1879~1966	청주	임정	독립장(63)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동제사 임정외무위원 임정외무부외교위원
김숙경	1886~1930	함북 경원	만주방면	애족장(95)	훈춘 독립만세운동참여 훈춘대한애국부인회 부회장
황병길	1885~1920	함북	만주방면	독립장(63)	이범윤 산포총대, 북로군정서 모집대장, 안중근 최재형등과 독립운동
김순애	1889~1976	장연	임시정부	독립장(77)	신한청년당, 상해대한애국부인회, 대한적십자회, 의용단 재건한국부인회
김규식	1881~1950	서울	임시정부	대한민국장(89)	신한청년당,임정외무총장, 학무총장 임정 구미위원부 위원장 국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주석
김온순	1898~1968	함북	만주방면	애족장(90)	3.1운동 참가, 신한농민당여성부장
김광희	1892~1968	함북	만주방면	대통령표창(63)	고려혁명위원회 해외조직부장, 고려혁명당간부, 신한농민당 위원장
김우락	1854~1933	경북 안동	만주방면	애족장(19)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이끌었던 남편 이상룡지원

이름	생몰연도	출신지	활동계열	훈격	주요활동
이상룡	1858~1932	경북안동	임시정부	독립장(62)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조직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조직
김원경	1898~1981	서울	임시정부	대통령표창(63)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 극동피압민족대회 참석
최창식	1892~1957	서울	임시정부	독립장(83)	임시의정원 초대 경기도의원, 상해 대한민국 거류민단 임정 국무원 비서장
金子文子	1903~1926	일본	운동지원	애국장(18)	무정부주의 단체 불령사
박열	1902~1974	문경	일본방면	대통령장(89)	흑도회, 흑우회, 일항암살계획
김효숙	1915~2003	용강	광복군	애국장(90)	항일선무공작대 공작요원, 광복군 입대
송면수	1910~1950	회양	임시정부	애국장(92)	광복군 제2지대 정훈조장, 한국독립당 중집위원회 상무의원 겸 선전부 주임
노영재	1895~1991	용강	중국방면	애국장(90)	임정요인 지원, 민족혁명당 활동
김봉준	1888~미상	용강	임시정부	대통령장(89)	임시정부수립참여, 임시의정원의장 등 역임, 한국독립당 창당
두군혜	1904~1981	중국	운동지원	애족장(16)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부원, 한국 구제총회 이사, 『독립』 투고
김성숙	1898~1969	철산	임시정부	독립장(82)	3.1운동 주동, 의열단 선전부장, 조선민족연맹 선전부장, 임정 국무위원
민영주	1922~생존	상해	광복군	애국장(90)	한국광복군 입대, 제2지대 본부전속
김준엽	1920~2011	강계	광복군	애국장(90)	학병으로 광복군 한광반 입대
박원희	1898~1928	서울	국내항일	애족장(00)	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회 집행위원, 중앙여자청년동맹, 근우회 창립준비위원
김사국	1895~1926	서울	국내항일	애족장(02)	국민대회조직, 조선청년연합회 편집부 위원, 무산자동맹회 동양학원 대동학원
박자혜	1895~1943	서울	국내항일	애족장(90)	3.1운동시 병원 동료와 만세운동참여, 독립지사 연락 및 정보 지원
신채호	1880~1936	청주	계몽운동	대통령장(62)	황성신문 및 대한매일신보 논설, 독립사상 고취, 임정의정원 위원,
신순호	1922~2009	청원	광복군	애국장(90)	광복군 입대
박영준	1915~2000	파주	광복군	독립장(77)	한국광복진선위원회 청년공작대 선무공작, 임정간부, 광복군제3지대
안혜순	1903~2006	의주	중국방면	건국포장(19)	한인애국부인회, 임정 의뢰 기념전단 인쇄 및 배포
문일민	1894~1968	강서	임시정부	독립장(62)	평남도청폭파, 일인경관사살
연미당	1908~1981	여주	중국방면	애국장(90)	한인여자청년동맹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재건한국애국부인회
엄항섭	1898~1962	여주	임시정부	독립장(89)	임정 의정원위원, 청년동맹회 한국교민단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선전부장, 주석비서
오광심	1910~1976	선천	광복군	독립장(77)	광복군 제3지대 기밀비서직
김학규	1900~1967	평원	광복군	독립장(62)	한국광복군 참모, 총사령부 참모처장, 광복군 제3지대장

이름	생몰연도	출신지	활동계열	훈격	주요활동
오건해	1894~1963	충북	중국방면	애족장(17)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당원
신건식	1889~1963	청원	임시정부	독립장(77)	동제사,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정부 재무부 차장
오영선	1887~1961	양주	중국방면	애족장(16)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 당원
최형록	1895~1968	평양	임시정부	애족장(96)	한국여성동맹, 한국독립당, 재건한국애국부인회 임정 외무부, 총무과
조소앙	1887~1958	양주	임시정부	대한민국장(89)	임시정부 수립 참여, 임시의정원의원, 외무부장 등, 한국독립당 조직
오향선	1910~2006	황해 신천	만주방면	애국장(90)	김좌진장군 부하 무기운반 은닉 연락 책임, 동지 생활 지원
유창덕	1902~1931	평북 선천	만주방면	애국장(90)	신민부 지방간부, 김좌진장군 보좌
윤용자	1890~1964	서울	중국방면	애족장(17)	한국국민당 당원, 한국혁명여성동맹
지청천	1890~1964	서울	광복군	대통령장(62)	신흥무관학교 교장대장, 대한의용군, 고려군관학교 설립, 광복군 총사령관
이성례	1884~1963	미상	미주방면	건국포장(15)	대한여자애국단 맥스웰지부 단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한민국민회
이암	1884~미상	강서	미주방면	애족장(15)	공립협회 회원, 대한민국민회 리버사이드 대표원, 클레몬트지방회 총무
이숙진	1900~미상	중국	운동지원	애족장(17)	한국국민당 당원,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 당원
조성환	1875~1948	서울	임시정부	대통령장(62)	일본총리 桂太郎 암살시도, 북로군정서 군사부장, 외교위원장, 임정국무위원
이순승	1902~1994	양주	중국방면	애족장(90)	상해망명 조국광복운동 참가,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 가입
조용원	1899~1979	청송	국내항일	대통령표창(09)	독립운동 표방한 우치교 활동, 자금과 교도 모집
이애라	1894~1922	아산	만주방면	독립장(62)	독립운동, 간도 동포와 독립운동가 찾아 밀서소지하고 입국 시도, 발각되어 참살
이규갑	1888~1970	아산	임시정부	독립장(62)	국민대회 중앙대표, 임시정부 의정원 총청도의원, 임시정부 의정원
이은숙	1889~1979	공주	중국방면	애족장(18)	신흥무관학교 설립, 독립운동가 활동 지원, 자금 지원
이회영	1867~1932	서울	만주방면	독립장(62)	신민회 간부, 신흥강습소 설립, 군사훈련 실시, 경학사 조직
이의순	1895~1945	함남 단천	중국방면	애국장(95)	이동휘차녀 명동여학교 교사 러령부인회 상해한인 여성동맹
오영선	1886~1939	경기 고양	임정	독립장(90)	임시의정원 의원 임정국무원 비서장, 국무원, 법무총장, 군무부장, 외무부장등
이인순	1893~1919	함남 단천	만주방면	애족장(95)	이동휘 장녀, 교사로 활동하며 여자교육에 헌신
정창빈	미상~1920	함경도	만주방면	대통령표창(95)	신민회 가담, 화동학교 교사, 이동휘 독립운동 지원
이혜련	1884~1969	강서	미주방면	애족장(08)	독립운동자금 지원, 부인친애회 참여, 대한여자애국단
안창호	1878~1938	강서	임시정부	대한민국장(62)	공립협회, 신민회, 대성학교 흥사단, 임정 내무총장 노동국 총판, 국민회운동
이화숙	1893~1978	서울	임시정부	애족장(95)	임정 국무원 참사,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이름	생몰연도	출신지	활동계열	훈격	주요활동
정양필	1893~1974	충북 청원	주방면	애족장(95)	한인소년병 학교 한성정부 평정관 대한민국민회 디트로이트 지방총회
임수명	1894~1924	충북 진천	의열투쟁	애국장(90)	통의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 신팔군 장군(남편)을 도와 독립운동
신팔군	1882~1924	충북 진천	만주방면	독립장(63)	신흥무관학교교관, 통의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 봉천성전투서 전사
전월순	1923~2009	상주	광복군	애족장(90)	조선의용대 공작활동, 광복군
김근수	1912~1992	진양	광복군	애국장(90)	조선의용대 대적선전공작 및 항일투쟁, 광복군 특공공작원
정정화	1900~1991	충남 연기	중국방면	애족장(90)	임시정부 김구 이동령 도움, 한국혁명여성동맹, 재건한국애국부인회
김익한	1900~미상	서울	임시정부	독립장(90)	대동단 한인청년동맹, 임정 선전위원회, 한국독립당 광복군조직훈련과장
정현숙	1900~1992	경기용인	중국방면	애족장(95)	한국혁명여성동맹, 한국독립당
오광선	1896~1967	경기용인	만주방면	독립장(62)	낙양군관학교 교관 동북항일한중연합군 독립군 대대장, 광복군
조순옥	1923~1973	연천	광복군	애국장(90)	광복군 총사령부 입대, 복무
안춘생	1912~2011	황해도	광복군	독립장(63)	일본군 상해침공시 인상항 등 전투 참여, 상해 거사 한국광복군 주령지대장
조화벽	1895~1975	양양	3.1운동	애족장(90)	호수돈여학교 3.만세시위 주도
유우석	1899~1968	천안	3.1운동	애국장(90)	3.1운동, 항일투쟁
차경신	미상~미상	평북 선천	만주방면	애국장(93)	부인회 간호대 조직, 대한청년단연합회 총무 재무 군자금모집
박재형	1889~1967	평남	미주방면	애족장(17)	공립협회, 대한민국민회
최갑순	1898~1990	함남 정평	국내항일	애족장(90)	조선독립애국부인회 동부회장 군자금모집
송세호	1893~1970	선산	국내항일	애국장(91)	임시의정원 국무원 재무부위원, 청년외교단 조직, 이강탈출운동
최선화	1911~2003	인천	임시정부	애국장(91)	한국혁명여성동맹, 재건한국애국부인회
양우조	1897~1964	강서	임시정부	독립장(63)	재미흥사단, 한독당 중앙훈련부장 역임, 임정생계부차장, 광복군총사령부참사
최혜순	1900~1976	광주	임시정부	애족장(10)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 회계, 임시의정원 전라도의원, 상해한인애국부인회
김철	미상~1925	미상	만주방면	애국장(09)	국민회군 장교, 일본정탐 김군삼 처단의열투쟁
한도신	1895~1986	평남 대동	중국방면	애족장(18)	평양만세운동태극기제작, 임정요원은닉처 제공, 평남도청 폭탄 운반
김예진	1898~1950	평남 대동	중국방면	독립장(62)	3.1운동참가, 의용단 서무부장, 일선청년단 결사대 평남도청 폭파시도
허은	1909~1997	안동	만주방면	애족장(18)	서로군정서 회의 조석 조달, 군복 배급
이병화	1906~1952	안동	만주방면	독립장(90)	통의부 가입, 의주부 경찰주재소 습격 순사살해
홍매영	1913~1979	평북 박천	중국방면	건국포장(18)	한국독립당 당원, 유한책임한국광복군군관소비합작사 사원
차이석	1881~1945	평북 선천	임정	독립장(62)	신민회, 1911년 사내총독 암살투쟁 한국독립당간부,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정부국무위원

(부록2) 여성광복군 명단

이름	출생	소속	이전경력	가족관계	비고
김상엽		1지대	조선의용대	김두봉 녀	
김정숙	1916	총사령부		김봉준 녀	창설요원
민영주	1923	2지대		민필호 녀	창설요원
박기은	1925	3지대			
사중득		2지대3구대			
신순호	1922		광복진선청년공작대	신건식 녀	창설요원
신정숙	1910	2지대3구대	징모3분처	송진표 처	본명 봉빈
오광심	1910	3지대	광복진선청년공작대	김학규 처	창설요원
오희영	1924	3지대	광복진선청년공작대	오광선 녀	
유상현		2지대3구대	여고교원		
이월봉	1915	2지대1구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임소녀	1908	2지대2구대			
장경숙	1904	2지대2구대			
조순옥	1923	2지대1구대		조시원 녀	창설요원
최동선		1지대		최석순 녀	
지복영	1920	징모6분처	광복진선청년공작대	지칭천 녀	창설요원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제 IV

동북항일연군 여전사  
이재덕(李在德)

강수옥(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 부원장)



이재덕(1917–2019)은 중국조선족 항일연군 여전사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관리국 부국장이었다. 1917년 12월 29일 이재덕은 조선평안남도 계천군논도리(朝鮮平安南道介川郡畚道里)의 한 빈곤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다. 1910년 일본이 조선 전역을 침점하자 그의 일가족은 고향을 떠나 1924년 여름 흑룡강성 라북현오동하서둔(黑龙江省萝北县梧桐河西屯)으로 이주하였다. 이재덕은 유명한 항일여열사 김성강(金成剛)의 1933년 겨울, 15살 난 이재덕은 나이가 가장 어린 동북항일연합군전사로 되는데 그녀는 동북항일전쟁 14년 고된 투쟁사의 견증인이기도 하다.

## 1. 이재덕의 일생

이재덕은 중국에 이주해 온 후 1928년 봄, 중국공산당 만주위에서 파견한 최석천(崔石泉)이 창설한 흑룡강성 라북현 조선족모범소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아동단과 소선대에 가입하였다. 1932년 구정, 탕원중심현위(汤原中心县委)에서 조직한 반일 선전대에 가입하였다.1932년 가을 공청단에 가입하였고 지구 청년단 위원 및 마을 청년단 소조장을 담당하였다. 1933년 이재덕과 기타 단원청년들은 장흥덕(张兴德)의 영도하에 항일구호 붙이기, 전단지 살포, 우편물 전달, 연락을 취하기 등 활동을 하면서 항일투쟁을 견지하였다. 1934년 가을,이재덕과 배성춘(裴成春)<sup>1)</sup> 등은 탕왕하리(汤旺河里)에서 임시 이불복장공장을 창설하여 부대전사들에게 옷을 지어 공급하였다.

1936년 7월, 이재덕은 중국공산당에서 가입하였고 1937년 7월, 풍중운(冯仲云)<sup>2)</sup>과 조상지(赵尚志)<sup>3)</sup>

1) 배성춘(裴成春)(1902–1938), 본적은 조선 청도군이고 1910년에 부모를 따라 중국동북에 이주하였으며 1927년에 라북오동하촌에 정착하였고 복풍도전(福丰稻田)회사에 고용되었다. 1932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3에 탕원무풍랑구(汤原无风浪区)부녀구국회 회장을 담임하였으며 같은 해 가을 탕원유격대에 전입하였고 나중에 항일연합6군 밀영에서 후군방면의 업무를 영도하였다. 후에 모아산(帽儿山) 이불복장공장을 창설하였다. 1937년 북만임시성위확대회의(北满临时省委扩大会议)를 이불복장공장에서 소집하였고 그는 전 공장 인원들을 영도하여 회의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1938년 배성춘은 항일연합6군 1사단 후군부서로 전임하여 영도업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서광해(徐光海)와 함께 후방병원 전이를 인솔하던 도중에 희생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세였다.

2) 풍중운(冯仲云)(1908–1968), 강소무진 출신이고 동북항일연군 장군이었으며 1927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0년 청화대학교 수학교를 졸업하였다. 중국공산당 동북반일총회 당원과 단원 서기, 중국공산당만주성위 순시원, 비서장, 동북항일연군 제3군 정치부 주임 및 주하중심현위(珠河中心县委) 선전부 부장, 중국공산당 북만성위(北满省委) 서기, 동북항일연군 제6군 정치부 주임, 제3로군 정위 등 직책을 역임하였다. 건국 이후, 송강성인민정부 주석 겸 하얼빈공업대학교 총장, 북경도서관 관장, 수리부(水利部), 수리전력부 부부장 겸 화동수리학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팔대(八大)” 대표와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되었다.

3) 조상지(赵尚志), 한족, 열하조양(热河朝阳)(현재 요녕성조양시)출신으로서 동북항일연군 창시자 및 영도중의 한명으로서 동북지구 최초 공산당원이다. 1925년 여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북벌전쟁시기 동북지구에서 반제국반군벌 혁명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였다. “9.18사변” 이후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상임위원,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 조상지는 중국공산당 파연(巴彦)항일유격대(중국공농홍군 36군 독립사)를 창설하고 북만주하(北满珠河) 반일유격대 대장을 담임하였으며 그 이후 동북반일유격대 하동시대 사령관,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군장, 북만항일연군 총사령관, 동북항일연합 제2로군 부총지휘 등 직무를 담당하였다. 조상지와 이조린(李兆麟) 등은 주하(珠河), 탕원(汤原) 항일유격근거지를 창건하였다. 1942년 2월 12일, 조상지는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희생되었다. 2009년, 조상지는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등 11개 부서에서 선정된 “100명 새중국 성립을 위해 돌출한 공헌을 한 영웅모범인물”로 선정되었다.

의 소개를 통하여 우보합(于保合)과 결혼하였다. 8월 남편을 따라 파란하(巴兰河)상류 동분하장목(东岔河张木)군영의 항일연합 3군기지에서 후근업무에 종사하였다. 1940년 이재덕은 소련에서의 군사훈련에 참가하였고 무선전보 송수신과 무선전보 사용 및 수리를 학습하였다. 그 이후에 북야영 훈련에 참가하여 계속하여 무선전보를 배웠다. 1941년 7,8월경에 2로군(二路军)2지대(二支队) 대장 왕효명(王效明)이 인솔하는 소부대를 따라 귀국하여 유격전에 참여하였고 소부대 무선전보 송수신을 담당하였으며 보청(宝清), 부금(富锦), 이란(依兰) 일대에서 적들을 타격하였다.

1942년 겨울, 이재덕은 강신태(姜信泰)<sup>4)</sup> 정치위원을 따라 소련에되돌아 가서 88려(旅)에 편제되어 교통영 전사로 되었다. 1945년 12월, 귀국하여 길요군구(吉辽军区) 길림성군구(吉林省军区) 방송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 연변조선족간부학교 부과장과 화룡현 부련회 주임을 담당하였다. 1950년 1월 이재덕은 중앙조직부의 안배에 따라 국무원(政务院-国务院) 비서청 비서처에서 기밀담당 비서관을 담임하였고 국무원 공장과 주은래 총리 도장 및 기밀문서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 1969년 “5.7” 간부학교에서 노동단련을 하였다. 1979년 인민대표대회 당위원회도서관 주임직에 복직하였다. 1982년 6월 전국인대당위원회 비서국 부국장을 담임하였고 1982년 9월 퇴직하였다.

## 2. 혁명의 길로 나아가다(1917–1933)

이재덕의 어머니 김성강 열사는 일본군에 의하여 생매장을 당한 중공탕원중심현위(中共汤原中心县委) 위원이었다. 세상물정을 알기 시작하여 서터 최용건(崔庸健)<sup>5)</sup>, 풍중운 등 혁명선배들의 지도와 영향하에 동북항일연군 6군의 가장 젊은 여전사로 되었다.

이재덕이 2살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지주에게 맞아 사망되었고 아버지 이상희는 조선해방“독립단”에

4) 강건(姜健)(1918–1950), 조선인민군총참모장, 중장. 원명은 강신태로서 조선반도남부 경상남도 상주 태생으로서 일찍이 일본통치를 피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에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참여하였고 항일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였으며 1945년 일본이 투항한 이후, 그는 연변 지휘관을 담당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총참모장으로 승임되었고 조선전쟁을 지휘하였다. 1950년 9월 8일 공습을 당하여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전사하였고 그때 나이는 32세였으며 조선전쟁에서 전사한 장교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았다.

5) 최용건(崔庸健)(1900–1976), 또한 최추해(崔秋海),최석천(崔石泉) 등 이름도 사용하였다. 김일성 시기 조선 2인자로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부주석, 두번째 원수로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차수(次帅)였다. 조선평안북도 용천군(龙川郡)에서 태어났고 1919년에 반일운동에 투신하였다.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 배움의 길을 찾았고 중국운남강무당(讲武堂)에서 공부하였다. 졸업한 후 황포군관학교 교관을 담임하였다. 1926년 중국북벌전쟁에 참가하였고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이듬해에 광주봉기에 참가하였다. 1928년부터 중국동북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하였다. 1933년 6월 요하(饶河) 항일유격대 창건에 참여하였다. 1936년 11월 동북항일연합군 제7군 참모장을 담당하였고 이듬해 봄엔 대리군장을 담당하였다. 1940년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 참모장을 담당하였고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한 후 귀국하였다. 1946년 2월 선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장을 담당하였고 1948년 2월 조선인민군 초대 총사령관을 담당하였으며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민족보위상(保卫相)을 담당하였다. 1950년 6월부터 1957년 9월까지 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최고부사령관, 내각 부수상(副首相)겸 민족보위상을 역임하였고 조선전쟁과 인민군건설에서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1953년 공화국 차원수 칭호를 수여받았고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당선되었으며 김일성 훈장과 기타 훈장들을 여러번 수여받았다.

참가한 원인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온 가족은 할머니 안순희를 따라 1920년 겨울 중국 요녕성 단둥교의 농촌으로 이주하여 왔고 1924년에 흑룡강성 당원현 오후부근의 복흥둔(福興屯)으로 이사하여 안착하였다.

당시 마을에는 송강성독군(松江省督軍) 오준생(吳俊生)이 개설한 “복풍도전회사(福豐稻田公司)”가 있었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농민들에게 세를 주어 벼를 심게 하였다. 끊임없이 토지 세를 높이고 또한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게다가 오준생의 대리인이 중간에서 착취를 하다보니 1년동안 농민들은 고생한 보람이 없이 힘들게 보내고 있었다.

1928년 초봄, 마을에 3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나중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2인자로 된 노혁명이 최용건이었다. 얼마전에 그는 유명한 광주봉기에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 당원이었고 황포군관학교 교관 겸 제5기 제2지구 대장으로서 직접 2~3백명의 병사들을 인솔하여 10여 시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봉기가 실패한 후 특무들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봉쇄를 깨고 광주로부터 동북으로 왔다. 동북에 도착한 후, 그는 교사의 명목으로 사방에 혁명의 불씨를 전파하였고 그 과정에 많은 애로에 부딪혔다. 흑룡강성 통하현의 대고동과 소고동 일대에서 혁명활동을 진행할 때, 체포되어 살해당할뻔한 봉변을 당한 후 재차 복흥마을로 왔다.

최용건은 김치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복흥마을에 도착하여 첫번째로 조직한 활동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한 모금활동이었다. 마을변 고지에 송동모범학교를 건설하였으며 삼강지구 조선민족교육을 시작하였다. 당시 10살이었던 이재덕은 행운스럽게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수업에서 그는 처음으로 중국과 조선이 동일하게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박하에 심각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운명을 알게 되었고 선후하여 공산주의 아동단과 소년선봉대에 가입하였으며 소대장과 중대장을 담당하였다. 학교에서는 어문, 산수, 체육, 음악 등 과목을 개설하였다. 음악시간에 처음으로 배운 노래는 최용건 교장이 편집한 모범학교 교가 “모범학교 소년들이여, 레닌주의를 배우고 레닌모범 소년으로 되자! 레닌의 사상을 배우고 너도 나도 모두 레닌 모범소년으로 되자...”였다.

저녁이 되면 학교는 성인들의 집회장소로 되었고 이재덕은 늘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학교에 와서 최고장의 혁명도리 강의를 들었다. 여기에서 이재덕은 처음으로 “공산당”이란 세 글자를 알게 되었고 최고장은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저지른 침략죄행이며 레닌이 영도한 쏘베트 10월혁명에 대 강의하였다. 또한 자본가와 지주들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며 장개석의 혁명 배신과 광주봉기의 경과에 대해서도 연설하였다.

최용건은 중점적으로 중국에서 한창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토지혁명운동을 소개하였고 대중들이 단결하여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통치 및 일체 착취제도를 뒤엎을 것을 호소하였다. 군중들은 이러한 혁명도리를 알아듣고 사상각오가 크게 제고되었고 자신들의 혁명조직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1928년 10월 최용건은 비밀리에 배치운(裴治云), 최규복(崔圭福)과 이재덕의 어머니 김성강을 입당시켰다. 이는 삼강(三江)지역에서 가장 이른 첫번째 중국공산당 당원들이었다. 입당하는 인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1929년 봄 학립(鶴立)부근의 북칠호둔(北七号屯)에서 중국공산당 탕원현(汤原县)위원회를 성립하였다. 이는 삼강지역에 창설한 첫 현위원회였고 또한 전 동북에서 최초로 성립한 현위원회중의 하

나였다. 1931년 항일투쟁의 수요에 따라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비준을 거쳐 탕원중심 현위원회로 확장하였고 이재덕의 어머니 김성강은 현위원회 위원 겸 부련회 주임을 담당하였다. 1930년 겨울 최용건은 여기에서 2차례의 군정 훈련반을 개설하였고 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은 나중에 대부분 항일 연합부대의 군, 사, 퇴급 영도간부로 되었고 탕원유격대와 항일연합 6군을 창건하였다.

1932년 4월 최용건은 탕원현을 떠나 보청(宝清), 호림(虎林), 요하(饶河)등 지역에서 당조직을 발전시키고 항일연합 7군을 창설하였다. 이재덕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릴때부터 혁명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아동단원으로서 초소 지키기, 교통연락, 전단지 배포, 반일표어 붙이기 등 일들을 하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의 지하공작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또한 가무, 화극, 연설 등 형식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죄행을 폭로하는 반일분장선전대에도 참가하였다. 1932년 구정 이후 선전대는 찬 바람을 무릅쓰고 학립진(鶴立鎮), 련홍구(蓮江口), 태평천(太平川), 각절하(格节河)금광, 학강(鶴崗)탄광, 라북(萝北)경내 압단하(鴨蛋河), 도로하(都魯河), 이란현(依兰县) 북부 산간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40여일동안 선전연출을 진행하였고 가는 곳마다 공연하는 이들과 관중들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는 군중들의 항일각성 추진에 커다란 작용을 일으켰다. 흑룡강성 군부군 부사령관이고 유명한 항일 장군이었던 왕명귀(王明貴) 등 많은 사람들이 분장선전대의 영향하에 항일의 전선으로 나갔다. 1932년 겨울 이재덕은 김성철과 배경천의 추천으로 공청단에 가입하였고 가장 어린 지역 위원 겸 소조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때 나이는 겨우15살이었다.

“9.18”사변이후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에서는 간부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항일무장을 조직하였다. 양정우는 남만(南滿)에 가서 반석유격대를 영도하였고 조상지는 장갑주(張甲州)에 가서 파언유격대를 창립하였으며 후보중(周保中)6)은 구국군을 영도하였다.

1932년 늦가을 만주성위는 순시원 풍중운을 탕원중심현위에 파견하여 항일유격대 건립을 책임지게 하였다. 풍중운은 학립진(鶴立鎮) 북쪽에 새로 건설한 7호둔(屯)에 왔고 현위에서는 이재덕의 집에 그의 주숙을 안배하였다. 그리하여 이재덕은 늘 자애롭고 불임성이 좋은 풍아저씨와 대화하게 되었고 중앙소베이트지구 소선대원들이 영리하게 적들과 투쟁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으며 많은 혁명도리들을 깨닫게 되었다. 풍중운은 이재덕이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또 한명의 인도자였다.

1933년 초의 어느 하루, 풍중운과 현위 간부들이 이재덕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무리 변장한 산적들이 마을 서쪽에서 들이닥쳤고 바깥에서 망을 보던 이재덕은 급히 집으로 뛰어와 소식을

6) 후보중(周保中)(1902-1964), 원명은 계리원(奚李元)이고 호는 소황(紹璜)으로서 운남대리(云南大理) 태생이며 백족이다. 1902년 2월 7일 운남성 대리현 만교촌(灣橋村)에서 태어났고 1926년 국민혁명군 제6군 탄장, 부사장을 연임하였으며 1927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1년 “9.18사변” 이후 귀국하였다. 1932년 7월 하얼빈에 와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를 담임하였고 1945년 9월 중순 동북항일연군 교도려(教導旅)가 동북인민자위군으로 확대되었을 때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을 담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운남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남군정위원회 정법위원회 주임 겸 민정부장 등 직을 담임하였다. 1955년 일급 8.1훈장, 일급 독립자유훈장과 일급 해방훈장을 수여받았다. 1964년 2월 22일 북경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후보중은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창시인이고 동북지역 항일유격대 전쟁 주요 영도중의 한명이었다.

전하였다. 이때 산적들은 이미 마을에 들이닥쳤고 집집마다 수색하며 약탈하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풍중운은 간부들 분산을 명령하였고 서류들을 잘 숨겼다. 이때 이재덕의 할머니 안순희(安順姬) 노인은 풍중운에게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병어리처럼 연기하고 기타 일들은 내가 알아서 응대하겠다”고 분부하였다. 이때 총을 든 몇명의 산적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마구 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재덕과 풍중운을 발견한 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재덕의 할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연약한 몸으로 풍중운을 보호하였고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용서하세요. 애는 저의 병어리 아들인데 조선에서 나를 보러 왔소”라고 소리쳤다. 이 위급한 시각에 마을의 지하당원들과 백성들이 몰려와 이구동성으로 “이 병어리는 안할머니의 아들이고 이제 온지 며칠 안된다”고 말하였다. 산적들이 돌아간 후 풍중운은 이재덕 할머니 찢어진 옷과 상한 얼굴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덕 할머니는 병으로 사망되었다. 나중에 풍중운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워 하였고 노인의 산소에 찾아가 야생화를 울리고 오래동안 묵도하였다.

20년 이후 풍중운이 북경에서 근무하면서 이재덕을 만났을 때 “만일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이재덕의 어머니 김성강은 정직하고 소박하며 군중들한테 덕망이 높은 부녀간부였다. 1933년 10월 4일 음력 8월 15일 추석 저녁에 김성강은 현위원회 영도 배치운, 최규복 등 간부들과 집에서 재차 유격대를 조직하는 계획 토론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학립(鶴立) 일본헌병대의 수색을 당하였고 300여명 사람들이 수감되었으며 적들은 일일이 심문하여 당원, 단원들을 사출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군중들이 모른다고 단언하자 적들은 반역자 이원진(李元珍)을 불러들여 대질 심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 탕원현위서기 배치운, 조장부장 최규복, 현위위원 겸 부녀주임 김성강과 중국공산당 정중구(丁重九), 손철용(孫哲龍), 김술용(金術龍), 이진술(李振術), 립국진(林國鎭), 공청단원 석광신(石光信), 손명옥(孫明玉), 김봉춘(金峰春) 등 12명이 구금되었다. 적들의 잔인무도한 폭행이 시작되었고 배치운, 김성강, 최규복 등 12명 인원들에게 고추물붓기, 채찍 때리기, 참대바늘로 손끝 찌르기 등 고문이 진행되었지만 한명도 굴복하지 않았다.

적들은 김성강이 여자여서 대처하기 쉬울거라 생각하고 “만일 당신의 딸을 내놓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하자 김성강은 “일본 놈들과 싸우기 위하여 내 딸은 산에 올라갔고 언젠가는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성난 적들은 김성강의 손가락을 잘랐지만 김성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강철같은 견강함을 보여주었다. 절망한 적들은 큰 구멍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작하였다. 배치운, 김성강 등 모든 인원들은 죽음 앞에서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중국공산당 만세!”를 웨치며 영용하게 희생되었다.

“8.15”참안으로 탕원현 당조직은 엄청난 손상을 당하게 하였고 백색테러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혁명인들은 굴하지 않았다. 생존한 현위원회 위원 하운걸(夏云杰)과 장인추(張仁秋)는 유격대를 재건하는 중임을 떠맡았다.

### 3. 항일연합 6군에서(1934-1937)

중공만주성위에서는 1932년을 항일무장을 발동하고 조직하며 영도하는 “창건년”으로 정하였다. 이 해에 길림반석에서 홍군 32군 남만유격대를 창건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항일연군 제1군으로 발전하였고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항일유격대는 홍군 34군 동만유격대로 조직되었다. 동만유격대는 대부분 조선인들이었고 나중에 항일연군 2군의 골간으로 되었으며 조상지가 가장 일찍 참가한 파연유격대는 홍군 36군으로 임명되었다. 1933년에 조상지가 새로 창건한 주하(珠河)반일유격대는 나중에 항일연군 3군으로 되었다.

1932년부터 시작하여 중국공산당 탕원현위원회는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일유격대 조직업무를 전개하였다. 1932년 10월 10일 현위원회는 40여명의 당원과 단원들을 조직하여 탕원성북 반대하(湯原城北半戴河)촌(지금의 흑룡강성 보안둔(保安屯)에서 중국공농홍군 제33군 탕원항일유격대를 성립하였고 유격대가 새로 개편된 이후 여러 활동들을 조직하였다.

당시 고아로 된 이재덕은 유격대를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유격대의 전투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투에 참가함과 동시에 이재덕은 이불복장공장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산림임시병원의 간호업무도 담당하였다.

1934년 가을 유격대는 탕왕하(湯旺河) 골짜기에 임시 이불복장공장을 건립하였고 배춘성, 이재덕은 부대 전사들에게 군복, 배낭, 각반, 탄띠, 군모 등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이불복장공장을 방금 건립하였을 때 적들의 엄밀한 봉쇄와 토벌로 인하여 업무 환경이 매우 간고하였다.

이불복장공장은 고정된 장소가 없었고 부대를 따라 심산밀림에 옮겨다녔으며 임시로 세운 초막으로 공장과 임시 병원을 운영하였다. 적들이 산으로 들어와 토벌을 진행할 때 만일 적들의 인수가 많으면 전투하기에 불리하기에 유격대는 기계와 물자들을 숨겨놓고 환자들을 엄호하며 부대를 따라 이동하였고 적들의 인수가 적으면 경위대는 산 입구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매복전을 진행하였다.

1935년 봄 유격대는 금방 세운 이불복장공장에 임시병원을 설치하였고 이재덕 등 몇명의 여성들은 부상병을 간호하는 간호사로 되었다. 유격대에 약품이 떨어졌을 때 산에서 약초들을 채집하고 끓인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가끔 소염수와 쌀뜨물로 상처를 씻어주었다. 흑금하(黑金河)의 한차례 전투에서 왕명귀(王明貴)<sup>7)</sup>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이재덕 등은 먼저 맑은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고 불로 집게를 소독하여 파편들을 집어냈으며 그 다음 소금물로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는 등 치료를 하였다. 당시 극도로 힘든 조건하에서 이재덕 등은 팬주먹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항일전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7) 왕명귀(王明貴):길림성반석현 태생이고 1910년에 출생하였으며 1934년에 동북인민혁명군에 가입하였는데 그때의 군장은 유명한 양정우였다. 1936년 동북항일연군 제6군이 성립되었고 왕명귀는 3사에서 련장, 제8탄 탄장, 1955년에 소장계급을 수여받았다. 2005년 6월 22일, 왕명귀는 병으로 하얼빈에서 사망하였다.

1935년 초 이재덕은 항일유격대에서 “민생단(民生團)” 사건을 경험하였고<sup>8)</sup> 민생단 사건을 통하여 이재덕은 더욱 성숙되었으며 항일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1935년 10월 조상지는 동북인민해방군 제3군 주력부대를 인솔하여 주하(珠河) 근거지에서 복상하여 11월 이란에서 이정록(李廷祿)이 인솔하는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과 회합하였고 “8.1선언”<sup>9)</sup>을 접하게 되었다.

1935년말 3,4군과 탕원유격총부대는 화합하였고 “8.1선언” 내용에 근거하여 1936년 1월 24~28일 조상지는 탕원길흥구(汤原吉兴沟)에서 동북민중항일연합군 군정합동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협상과 토론을 거쳐 동북반일연합군 총사령부 성립에 동의하였고 조상지가 총사령관으로 당선되었다. 회의 기간에 조상지는 탕원유격총부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으로 개편하였고 하운걸(夏云杰)<sup>10)</sup>을 군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때 부대 인원은 1000여명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항일무장 세력들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기본 대오 주위에 단결되어 강대한 항일 세력으로 거듭났으며 유력하게 동만항일유격전쟁의 왕성한 발전을 추진하였고 1936년 7월 이재덕은 중국공산당 조직에 가입하였다.

8) 민생단은 일본식민통치자 조선총독부의 선동에 한무리 조선간첩들과 정계인들이 결탁하여 기획하고 일본식민당국 간도 총영사관의 비준을 거쳐 1932년 2월 15일 용정에 공개적으로 성립한 단체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만항일민족해방전쟁 대항을 목적으로 한 반동단체이고 구성원들은 조선인으로 제한되었다. 그들은 “한인자치(韓人自治)”를 허풍쳤고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중국분열, 위만주국 독립을 위한 음모 봉사,중화민족 내부단계 파괴, 중조인민 연합항일 분열, 중조인민간의 민족 감정 분열을 통하여 분할통치의 사악한 속셈을 달성하며 반동통치를 공고히 하고 유지함이 그 목적이었다. 민생단이 성립된 이후 일본침략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항일군민에 대하여 토벌을 진행하였다. 사처에서 유세하고 전단지들을 살포하고 조직을 확장하며 항일조직에 잠입하여 내부 전복을 진행하였다. 전쟁터에서는 미친듯이 동북항일연합군을 “토벌”하였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학살했으며 동시에 비열하게 이간책을 사용하여 “민생단” 사건을 조성하여 중국공산당조직과 군부간에 상호 잔혹한 투쟁과 살육이 발생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공산당 지하당 기층조직과 지하연락처가 파괴되었고 동북항일연군의 군심이 교란되었다. 지난 세기 30년대 동안에서 발생한 “민생단” 사건은 막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9) 1935년 8월 1일 흥군이 장정중에 중국공산당 공산국제주재 대표단 왕명 등은 공산국제제7차 대표회의에서의 각국 반파소 통일전선 건립의 정신요구에 근거하여 “항일구국을 위한 전체동포서 보고”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8.1선언”이다. 10월 1일 중국 쑸베트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의 명의로 파리“구국보”에 정식으로 발표하였고 전국인민들이 단결하여 일어나 내전을 정지하고 항일구국하며 국방정부와 항일연군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였다. “8.1선언”은 제2차 국공합작의 중요한 문건이고 중국공산당 폐쇄주의의 결속을 의미하며 항일민족 통일전선 책략실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10) 하운걸(夏云杰)(1903-1936), 산둥이수(沂水) 태생이다. 1926년 3월 하운걸은 군벌 혼전과 수년간 흉작으로 인하여 방법없이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흥룡강성 탕원현으로 왔다. 1931년 9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특파원 마중운이 탕원을 순찰할 때 마중운의 소개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32년 10월 지하당조직의 영도하에 중국공농홍군30군 탕원반일유격대를 건립하였고 하운걸은 총, 탄약, 보급품들을 조달하였다. 1933년 8월 2일 중국공산당 탕원중심현위에서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였고 하운걸은 현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군사업무를 책임졌다. 하운걸은 동북항일연군 제6군 창시인이고 선후로 탕원반일유격총부대 정치위원,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 군장을 담임하였다. 그는 탕원 근거지의 창시인중의 한명이었다. 2014년 9월 1일 중국민정부에서 공포한 제1차 300명 항일열사 명록에 가입되었다.

1937년 7월 중순 마중운과 조상지의 소개로 이재덕과 우보합(于保合)<sup>11)</sup>은 밀영에서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이재덕은 남편을 따라 항일연군 3군으로 가서 새로운 전투생활을 시작하였다.

## 4. 삼강(三江)을 전전하며(1937-1941)

항일연군 3군은 원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으로서 부대 인원은 6000여명이었고 동북항일연합 주력군 가운데의 한갈래였다. 조상지의 지시에 근거하여 이재덕은 후방업무에 착수하였다. 주요업무는 부대를 위하여 보급물을 준비하고 산에서 사냥꾼들의 항일구국 기부품들을 수거하는 것이었다. 부대에 더욱 많은 보급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재덕과 후방 전사들은 매일 70~80리의 산길을 걸으며 량식 등 물자들을 산으로 메어 날랐다. 1937년 12월 우보합은 제4사 정치부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이재덕은 남편을 따라 보청4사(宝清四师) 밀영으로 이동하였고 여기에서 이재덕은 이불복장공장에 배치되었고 선전업무도 담당하였다. 그들은 전단지를 인쇄하여 전방에 보내고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배포하여 항일도리를 선전하고 여러 민족들이 단결하여 일어나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함께 항일하고 항일유격대를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1938년 가을 우보합과 이재덕은 32단에서 근무하였다.

1938년 겨울, 일본 침략자들의 잔혹한 정책으로 인하여 인민군중과 우리 군의 연계가 차단되었고 동시에 토벌과 봉쇄 강화로 인하여 부대의 보급물이 부족하였으며 많은 전사들이 추운 겨울에 여전히 홑옷을 입고 있었다. 밀영의 식량이 적들에 의해 회손된 이후 부대는 또한 식량부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00명이던 부대의 인원은 연말에 37명밖에 남지 않았다. 항일의 불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명순(李铭顺) 탄장과 우보합은 부대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강하여 소련의 조상지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1939년 6월 하순, 소련의 동지가 우보합과 이재덕더러 조상지 사령관을 따라 동북항일전쟁터로 갈것을 통지하였다. 110명 부대는 조사령관의 인솔하에 하바롭스크(伯力)<sup>12)</sup> 다음 역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11) 우보합(于保合)(1914-1985)은 길림성 이동현성남청저자둔에서 태어났다. 1931년 “9.18”사변 당시 우보합은 길림1중에서 고종을 다니고 있었고 중국공산당 길림시 책임자 이세초(李世超)의 인도하에 혁명에 참가하게 되었다. 1933년 7월 공청단에 가입하였고 길림시단구위(团区委) 서기를 담임하였다. 1933년 10월 고종을 졸업하고 성위 파견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무선전, 군사기술을 배웠으며 그 후에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전이 승리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방송국, 정치업무를 책임졌다. 1945년 일본이 투항한 후 우보합은 주보종을 따라 장춘에 왔고 장춘경비사령부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다. 전쟁의 수요에 의하여 진운의 지시에 따라 우보합은 일본통신장비들을 이용하여 몇대의 직류방송장비와 직류수동발전기를 빠른 시간내에 안장하였고 부대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그 이후 요심(辽沈),평진(平津), 도강(渡江) 등 전투에 참여하였고 중국의 해방전쟁을 위하여 공헌을 하였다. 전국이 해방된 후 중국인민대학교 외국어전공을 공부하였다. 조선전쟁시기 부대로 돌아와 중국인민지원군 공련사(空联司) 통신처 부처장을 담임하였고 1952년부터 화북군사령부 통신처 처장, 군위원회 총병기부 레이더국 부국장, 국방부 제6연구원 기재부 부장, 3기부(三机部) 공급국 부국장 등 직무를 담임하였다. 1982년 퇴직하였고 1985년 4월9일 북경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조상지 사령관은 부대를 하나의 교도대(教导队)와 두개 중대로 편성하였고 대홍빈(戴鸿宾)<sup>13)</sup>을 총사령부 참모장 겸 교도대장으로 임명하고 기치중(祁致中)<sup>14)</sup>을 총사령부 부관장으로, 유봉양(刘凤阳) 등을 중대장으로, 우보합을 사령부 조직과 과장, 전신과 과장 겸 전신팀 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재덕은 교도팀 지도원을 담당함과 동시에 전신국 역전원(译电员)으로 임명되었다. 부대에서 당조직을 건립하고 조사령관이 서기를 겸임했으며 조상지는 이재덕을 부서기로 추천하였다.

부대는 계속하여 남쪽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몇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조상지의 이름은 신속하게 전해졌고 적들은 곧바로 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여 토벌을 진행하였다. 조사령관은 부대를 거느리고 노백산(老白山), 차파기하(岔巴气河)(지금의 대봉하大丰河), 탕왕하(汤旺河) 일대에서 적들과 싸웠다. 여름에 부대가 조상지를 따라 항일전쟁터로 돌아온 이후 전사들의 투지는 양양되었고 기세가 드높았다. 우랄 금탄광을 들이쳐서 일본 측량대대를 압수하였고 첫번째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었다. 조사령관은 기세를 몰아 하강(下江) 항일근거지를 회복하였고 재차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 다시 힘든 경지에 빠지게 되었다.

1939년 6월 이재덕 등이 소련에서 출발하여 귀국할 때 소련측에서는 조상지를 동북항일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인정하였고 항일연합부대에 장비들을 제공하겠다고 표시하였지만 중국의 당조직과 소통하지 않았다. 중국내 중국공산당북만성 위원회에서는 오히려5월말에 북만주 항일연합 사령부를 철수하고 제3로군을 성립하였다. 2로군, 3로군의 총지휘관 후보중(周保中), 장수전(张寿箴)은 “왕강지시문(王康指示信)”<sup>15)</sup> 문제에서 조상지와 의견분기가 매우 컸다. 만일 중앙의 지시가 없었으면 그들은 조상지의 영도를 받아들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1938년초부터 1939년 여름까지 일년반 동안 조상지가 소련에 구금되었을 때 동북과 전국의 항일형세는 가장 힘든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

당중앙과의 연락 두절로 인한 노선 분쟁으로 동북당조직내에 형성된 오해와 배척 환경에서 조상지는 당내의 영도권을 상실하였을 뿐만아니라 발언권도 상실하였으며 공산국제에서 인정한 “항일연합사령관” 지휘권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국제주의 원조하에서 소련군과 협동하여 낙문한

12) 하바롭스크(哈巴罗夫斯克), 원래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고 중국에서는 버리(伯力)라고 불렀다.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동해안에 위치한 중등 도시이다. 2002년 러시아 원동연방관할구 행정중심으로 되었다. 17세기 러시아가 흑룡강을 침략하였을 때 침략자 두목의 이름 하바롭스크 이름을 따서 “하바롭스크”라고 명명하였다. 1860년 러시아는 청나라 정부를 강요하여 불평등한 “중러북경조약”을 체결하였고 하바롭스크(伯) 및 우수리강 동쪽부터 바다까지 광대한 지역을 분할 강점하였다.

13) 대홍빈(戴鸿宾)(1911~1968) 동북항일연군의 고급지휘관이었고 룡녕무순해랑채양목림자촌(生于辽宁抚顺海浪寨杨木林子村)에서 태어났다. 1940년 6월 동북항일연합 제3로군 12지대 지대장을 담임하였고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 눈강(黑嫩)평원에서 전전하였다. 9월 주주풍악진(肇州丰乐镇)을 함락하였고 나중에 부대를 떠나 탈당하였다. 1945년 10월 15일 다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68년 3월 길림시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14) 기치중(祁致中)(1913-1939), 산둥조현(曹县) 태생이다. 1935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동북항일연군 독립사 사장과 제11군 군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기치중은 방정현(方正县)에서 동북혁명군 제3군과 합류하였고 1936년 칠성봉(七星峰)에서 항일근거지를 창건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다. 1937년 소련에 가서 원조를 청하였을 때 소련측의 잘못으로 수감되었다. 1939년 6월 귀국하였고 얼마 안되어 조상지의 착오 판단으로 사형되었으며 그때 나이는 겨우 26살이었다.

(诺门罕) 전쟁을 진행하고 대오를 정비하여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하강항일유격근거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하였다.

1939년 말 부대는 소련으로부터 전보를 받았고 전보 내용은 풍중운동지가 이미 소련에 도착하여 소련에서 중국공산당북만주성위와 길동성위(吉东省委) 주요 책임자 회의 소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상지를 회의에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상지는 우보합더러 이재덕 등 20여명이 함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회답을 보내게 하였다. 이재덕 등은 예정된 시간에 흑룡강을 건 재차 소련으로 건너갔다.

1940년 4월 이재덕과 우보합은 함께 하바롭스크로 파견되어 무선전과 정치이론을 배우게 되었다. 이재덕과 우보합은 소련의 한 노부부의 집에 주숙하였고 소련의 동지가 정치과목을 강의하였다.주요하게 소련공산당 역사와 국제형세를 강의하였다. 우보합은 이 시기 무선전업무를 복습하였다.

이재덕은 조상지와 함께 동북으로 돌아온 이후 조상지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조상지, 진퇴, 우보합, 유봉양 등과 함께 1940년 초 중국공산당북만주성위로부터 당적을 제명당하였다.

1941년 4월7일 이재덕은 북만성위 서기 김책(金策)<sup>16)</sup>에게 편지를 써서 사실의 전말을 설명하였다. 당시 후보중은 이재덕을 파견하여 무선전 송수신 업무를 배우게 하려고 하였고 이재덕은 이 배움의 기회를 당조직이 자신에 대한 고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결심하였다.

소련군 번역원이 주요하게 무선전 원리, 송수신기 구조와 성능을 강의하였다. 이재덕은 평소에 송수신을 연습하였을 뿐만아니라 송수신기 사용과 수리를 배우며 여러가지 애로를 극복하여 3~4개월 이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41년 6월22일 소련은 독일파쇼의 돌연습격을 받았고 소련 전국은 전쟁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일본침략자에 대하여서도 전쟁 준비를 다그쳤다. 7월 18일 소련원동군부에서는 후보중더러 항일연합 소부대를 편성하여 동북으로 돌아가라고 결정하였고 주요 임무는 근거지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여러지역 유격대를 집중한 후 통일 지휘하여 적들의 후방을 교란하고 견제하게 하였다. 그리

15) 1935년 중국공산당 대표단 책임자 왕명, 강생은 “길동책임동지에게 보내는 밀신(《给吉东负责同志的密信》)”(약칭으로 6.3 지시편지 혹은 왕강(王康)지시편지 라고 함) 을 발송하였고 길동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주하현위(珠河县委)에 전달하였다. 연이어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길동특별위원회와 중앙 동북주재 대표의 명의로 “주하현 당,단조직과 3군 책임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중앙 새정책노선”보충문건을 발송하여 진일보로 통일전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날 사업상에서의 “좌”적 착오를 비판하였다. 북만 당조직과 3군의 군장이었던 조상지는 지시 편지와 보충 편지의 일부 관점에 대하여 부당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중앙대표단에서 보내온 편지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다. 북만 당조직과 조상지는 여러번 사람을 파견하여 원동에서 소련 경내로 들어가서 중공중앙대표단을 찾아 정황을 분명히 하고 의견을 해명하려 하였다. 이때로부터 동북당조직과 항일연군들은 소련 원동군과 연계가 발생하였고 1937년 1월 조상지는 소련원동군구 사령 브류하르(布留哈尔) 원수에게 편지를 보내 중공중앙에 편지 전달을 요청하였고 브류하르는 1938년 초 조상지더러 소련에 와서 연락하라고 소식을 보냈다. 조상지가 월경할 때 마침 반혁명 분자 숙청을 확대화하는 시기였고 브류하르는 체포되었으며 조상지도 이 일에 연류되었다. 조상지가 인솔하는 항일연3군 1000명 인원들은 전부 무장해제를 당하였고 인원 대부분을 신강으로 해산시켰으며 조상지 본인도 감금되었고 1년 지나서야 석방되었다.

16) 김책(金策), 별명(别名) 김홍선(金洪善), 김성(金城), 김인(金印), 김인식(金印植), 라동현(罗东贤)을 사용하였고 조선함경북도 성진학성(城津鹤城)(현재의 김책시)태생이다. 어릴때 길림성 용정으로 이사하였고 용정시제1중학(대성중학의 전신인 동흥중학)에서 공부하였으며 학교 다닐 때 지하공청단에 가입하였다. 중국공산당원이었고 동북항일연군 제3군제4사 정치부 주임이었으며 중국공산당북만성위 서기 등 요직을 담당하였다.

고 군중들을 동원하여 여러가지 정보들을 수집하여 일본군의 변경과 후방에서의 동향을 소련측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7월 19일 후보중은 동북에 파견할 인원들을 선별하였고 제1차로 선별된 16명중에 이재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보합은 조상지가 당적을 상실하게 된 상황을 이재덕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신심을 갖고 당을 믿으라고 부탁하였다. 나중에 우보합, 진뢰와 이재덕은 모두 간고한 투쟁과 생사 시련을 이겨내고 당적을 회복하였다.

## 5. 서광을 맞이하여 (1941-1949)

1941년 9월 상순, 부대는 폭마정자(暴马顶子)에서 며칠간 정비하였다.

왕효명(王效明)<sup>17)</sup>은 우보합을 선전과 과장 겸 전보업무 주임으로 임명하였고 이재덕은 우보합과 함께 전보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들 소부대의 정찰업무는 주요하게 요하(饶河), 부금(富锦), 보청(宝清), 이란(依兰) 등 일본침략자 병력, 병종, 무기, 장비, 식량, 창고, 일본군 내부 생활, 일본군 주둔 상황, 이동 목표, 군사시설, 도로교통, 통신연락 및 일본침략자 반동선전, 민간 헛소문,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군에 대한 음모활동 등을 요해하고 수집하는 것이었다. 소부대의 정찰계획에 근거하여 왕대장은 부대를 이끌고 서남쪽의 보청쪽으로 진군하였다. 교력하(挠力河)에 큰물이 저서 저습지가 물에 잠겨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대는 할수없이 상류를 에돌아 가야 하기에 1개월의 노정이 필요하였다. 당시 일주일동안의 식량만 준비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20여일간은 식량이 떨어져 걷기조차 힘들었고 하루에 멀리 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버섯을 따고 나뭇을 캐고 자매과(刺梅果)를 따먹고 지어 나무 잎, 나무껍질, 풀뿌리를 먹으면서 끼니를 에웠다.그래도 전사들은 무기장비들을 생명처럼 여겼고 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속 행군의 길에서 굶어 죽고 동사하고 포화속에서 희생된 전우들은 이재덕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었고 열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을 끝까지 진행할 동기를 부여하였다.

1942년 11월 이재덕 등은 요하후방 밀영에서 강신태(姜信泰),우보합의 제2활동 밀영에서 화합하였다. 1년여동안 소부대는 현지 정찰과 군중들의 비밀조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변경선 일대 일본침략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병종 상황과 각종 무기장비 수량, 적들 부대의 번호, 장관 이름, 주둔 지점, 병영 및 수비 상황, 부근 마을의 배치, 적들의 이동 시간, 지점과 목적 등을 전보를 통하여 총본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군사공사의 종류, 범위, 용도 및 도로교통 등 상황들을 도표로 그려서 통신원을 통하

17) 왕효명(王效明)(1909-1991), 요녕성창도현(昌图县) 태생이고 1932년에 혁명에 참가하였으며 1935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55년 소장계급을 수여받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5기 전국위위회 위원이었다. 1991년11월30일 북경에서 병으로 사명하였다.

여 전달하였다. 그 외에 당지 주민들의 인구, 거주와 생활상황, 정치정서 및 민간 소문, 적들의 기만선전 내용 등 사회적, 군사적 정보들을 요해하였다. 겨울에는 보청과 부금 일대 산간에서 활동하였다.

1945년 3월, 88려 당위원회에서는 마침내 이재덕의 당적을 회복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다.

1939년 조상지를 따라 귀국하여 무고하게 당적을 해고당한 5년간 이재덕은 많은 힘든 우여곡절들을 겪었고 마침내 당적을 회복하였다.

88려는 남,북야영(野营)의 기초상에서 건립된 것이고 1942년 7월 러사단으로 편성되었다. 1943년 11월7일, 소련원동군부는 88려에 군기(军旗)를 수여하였고 정식명칭은 “소련홍군제88특별독립보병려”였다. 려장은 후보중중령이고 정치부령장은 장수전소령이다. 이 러사단은 혼합려로서 또한 “국제려”라고도 불렸으며 반은 소련인이고, 반은 항일연합 중국인과 조선인들이었다.

그 당시 학습과 훈련은 매우 긴장하였다. 정치과목은 주요하게 시사형세, 스탈린 군사명령 및 소독전쟁의 형세변화 등이었고 시험도 가끔 치렀다. 군사과 내용은 총검술, 투탄(投弹), 사격과 야외 작업 즉 정찰, 제도(制图), 전쟁터에서의 송수신 등 내용이었으며 반(班)패(排) 단위의 진공, 방어 전술, 무기장비, 규율 조령(条令), 내무조령과 대열조령 등이었다. 군사체육과에서는 목마(木马), 철봉, 평행봉, 조환 등 항목들이 있었다.

1945년8월8일 소련은 정식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88려의 전사들은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자질이 대대적으로 제고되었고 많은 88려의 간부들과 전사들은 직접 소련홍군의 동북출병에 참여하였다.

8월10일 후보중은 88려에서 동북항일연합군 반격을 준비하는 동원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는 “소련군과 협동하여 일본관동군을 소멸하고 전국항일전쟁 승리를 쟁취”라고 보고를 하였다.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후보중은 소련측과 협상한 전략배치에 따라 88려사단의 동북3성 57개 대중소 도시 진입을 지휘하였다.

차로하 길요군구(岔路河吉辽军区) 사령부에서 이재덕은 우보합을 만났고 그의 업무는 사령부에 남아 우보합과 함께 전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연길에 도착한 후 길요군구 사령부에서는 주숙을 안배하였고 이재덕은 방송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1948년 3월 10일 길림성정부는 연길시로부터 길림시로 이사하였다. 3월27일 길동전구(吉东专区)는 연변전구(延边专区)로 이름을 고쳤다. 3월에 연길로 돌아온 이후 사업상의 수요로 이재덕은 군복을

벗고 길림성부녀위원회 위원 겸 연길조선족간부학교 조직과 부과장으로 발령되었다. 그 당시 해방전쟁 형세의 순조로운 흐름에 따라 많은 간부들이 남하하였기에 새로운 해방구 개척이 수요되었고 간부 양성은 동북해방지역의 시급한 임무로 되었다. 이재덕이 소속되었던 학교는 전문적으로 조선족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다. 이재덕은 조선족이었기에 업무전개에 편리하였다. 당시 수강생들의 혁명열정은 아주 높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늘 부대와 지방의 일부 간부들을 요청하여 강의를 들었는데 수강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1948년 9월 30일 이재덕은 연길 서남의 화룡현에 전근되어 현위원회 위원 겸 부녀업무위원회 서기를 담임하게 되었다.

11월초 이재덕은 연변지역(1952년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성립되었고 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됨) 중국조선족 대표단 성원으로 선정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축하단으로 가게 되었다. 11월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이재덕은 더욱 열심히 화룡현 부녀회 준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부녀회 주요업무는 생산을 틀어쥐고 전선을 지원하며 부녀들을 동원하여 생산에 참여하게 하고 남성들을 동원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담가(担架)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광대한 군중들을 동원하여 식량을 절약하여 전선을 지원하고 전선 전사들의 옷과 신 및 이불 등 물품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동북해방구는 방금 토지개혁을 완성하였고 인민들이 전선을 지원하고 승리의 성과를 보위하는 열정이 대단하였으며 매번 맡겨준 임무를 넘쳐 완성하였다. 당시 부녀들은 식량절약, 전선지원의 호소에 호응하여 매번 밥을 짓을 때마다 조금의 쌀을 덜어내어 절약하였고 1개월간 이렇게 절약하면 전현에서 몇천근의 쌀을 모을 수 있었다.

1949년 1월 12일 화룡현 부녀대표대회가 소집되었고 제1차 민주부녀연합회 성원들을 선출하였는데 이재덕은 현부련회 주임으로 당선되었다.

1949년 1월 이재덕은 길림성 부녀대표로 당선되어 길림성부녀대표단 단장 위수영(危秀英)을 따라 심양에 가서 동북부녀대표대회에 참가하였고 1949년 2월 4일 중국공산당 길림성성위 민족사업 좌담회에 참가하였다.

심양에서 회의를 마치고 화룡으로 돌아온 이후 얼마 안되어 제4야전군 후근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이재덕더러 47군 후방 잔류 사무소에 전근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가족학교 제1지구 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1949년 3월 이재덕 등 가족팀은 부대를 따라 남하하여 하북(河北)의 탁현(涿县)에 도착하였다. 대부대는 남하하여 전국을 해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6월 우보합은 47군을 따라 호북(湖北) 요충지 이창(宜昌) 해방전에 참여하였고 이창시 전신국 군대표를 담임하였다.

여름에 이재덕은 부대를 따라 이창에 도착하였고 이창시위의 영도하에 이창시부련(妇联) 준비위원회 주임을 담당하였고 부녀업무를 전개하였으며 늘 농촌에 내려가 선전과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주요업무는 여전히 부녀들을 동원하여 생산을 잘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현지 부녀 간부들을 배양하고 그들의 각오를 높이고 업무방법을 배우게 하며 부녀들에게 남녀평등, 봉건제도 반대와 봉건혼인제 반대를 선전하고 주인공 관념을 수립하게 하며 새로운 국가건설의 혁명도리를 선전하는 것이었다.

1949년 10월 1일 인민들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나라의 주인공으로 되었다. 이재덕은 또다시 새중국을 건설에 뛰어 들었다.

## 6. 결말

항일 로전사이고 흑룡강성인민정부 부성장인 진뢰동지는 이재덕 부부에게 “君乃松山客，素知凌风雪，风雪总无情，幸有耐寒节”이라는 시를 증명하였고 이 시는 이재덕 일생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 만년에 이재덕은 연세가 많았지만 시종여일하게 본인이 항일전사임을 잊지 않았고 항일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여러 공익활동에 참여하였다. 2009년부터 전후하여 오동하(梧桐河)항일기념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이재덕부부에게 증정한 3병의 술과 다구(茶具) 한세트, 우보합이 생전에 주장하였던 무선전 전자관, 손잡이, 전보 통신기 걸포장, 조선노동당위원장 김정은이 이재덕 백세 생일을 축하하여 선물한 공예도자기 등 진귀한 항일 문물들과 역사 자료들을 기부하였고 여러번 항일연군의 노정을 재차 걸으면서 항일연군 회의록 “송산풍설정(松山风雪情)”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몸소 겪은 경력을 이용하여 항일연군의 우량한 전통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돌렸다.

역사의 초연이 모두 사라지고 항일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적들을 물리치며 포화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항일 노병사들도 이제 차차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 흘렀지만 청산은 여전히 푸르고 오동하 강물의 흐름소리는 마치 이재덕과 전우들의 함께 한 항일의 휘황한 여정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항일연군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동북항일연군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기원하며 재차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바이다.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

## 토론 I

---

---

강정숙(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 부원장)



제3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

## 토론 II

---

---

이선이(경희대 인문학 전임연구원)